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花洞一三八番地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發行兼編輯人 [illegible] 印刷人 [illegible]

「斷行할 心算」

新庄高等課長談

前日來紙上을 通하야 警務局新庄高等課長의 意見으로 世上에 發表된 것을 보고 吾人은 意外의 驚異를 늣긴 點이 잇다. 卽日本『內地에서 出版되는 답지 못한 新聞雜誌를 朝鮮에 가저오는』 것을 禁하고자 함이니 『이는 出版法에 何等의 制限이 업슴으로 不得已한 일이라』 『그 取締에 大端히 困難을 感함으로 이러한 部類는 今後 朝鮮에 가저오지 아니하게 法規改正을 同時로(新聞法規와) 斷行할 心算이라』고 하엿고 『또한 朝鮮에서 아모리 出版法에 依하야 取締하야 볼지라도 結局은 이러한 일이 잇스면 何等의 效果가 업는 外닭이라』고 하엿다.

이것이 萬一 相違가 업는 當局者의 意見이라고 하면 이는 新聞紙取締法規改正이라는 名目下에서 朝鮮의 思想的 障壁을 設하는 것이 아니될가 한다.

現行朝鮮新聞紙取締法規가 時代精神에 背馳될 뿐 아니라 非合理的이라는 것은 이미 本紙로도 意見을 發表하얏슬 뿐 아니라 世人이 共認하는 바오 總督府當局에서도 此를 看破하고 改正할 意가 잇다 하니 이는 當然한 일이라. 오직 最近 新法規는 時代的 要求에 適應하기를 企望할 뿐이어니와 右法規를 改正하는 精神이 思想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를 尊重하는 時代的 要求에 잇지 아니하면 이는 操觚界에서 煩悶하는 本意를 理解하지 못하는 것이라 하리라.

吾人이 現行法規의 不備를 指摘하고 그 改正을 要求하는 것은 決斷코 他意에서 出한 것이 아니오 現代의 思潮에 合當하지 못한 것이라는 點에 잇도다ㅡ 思想의 自由와 言論의 自由를 尊重하지 못한다는 法規임으로 그 法規의 存在를 長久히 持續하면 國民의 思想發展은 勿論이어니와 國利民福에까지 害毒이 波及할 것이라는 意味에서 改正을 力說하며 短處를 指論한 것이다. 當局者가 日本內地에서 出版되는 新聞雜誌中에 엇더한 것을 意味하는지 吾人은 詳細한 것을 듯지 못하엿거니와 萬一 朝鮮에 와서 『답지 못한 新聞雜誌』가 弊害를 끼칠 것이면 日本에서도 亦然 好事를 惹出하지 못할 것이니 朝鮮에만 限하야 그 輸入을 禁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日本內地에서 出版을 停止하게 하는 것이 妥當하지 아니한가. 實際에서 所謂 답지 못하다는 新聞雜誌가 그 實質上에 잇서서 얼마나 답지 못한 것인지 疑心이 업지 아니라. 어느 點을 보아서는 답지 못하다는 것이 오히려 그 價値를 相當히 認定할 만한 것이 아닐는지도 아지 못하거니와 이는 別論으로 할지라도 現總督府當局者가 답지 못한 新聞雜誌라는 斷案下에서 日本內地에서는 講讀되는 新聞이나 雜誌가 朝鮮에서는 購讀할 수 업는 法規가 생긴다 하면 이는 分明히 朝鮮人의 게 思想上 拘束을 重疊하는 것이니 그 惡影響은 지도 未知하노니 吾人은 斷然히 此意見에 反對하지 아니할 수 업다. 日本內地에서도 歐米各國에 比하면 苛酷한 取締를 當하는 것이 그 實狀이어늘 이제 다시 그 以上의 拘束을 加하야 總督府意見에 依하야 朝鮮에는 特殊한 書物만 流行하게 된다 하면 實로 朝鮮에 在하야는 可恐할 打擊을 未免할 줄 밋노라.

元來 思想의 危險은 思想에 잇는 것이 아니고 그 思想이 行動에 移表될 時에 危險한 것이오 危險한 行動이라고 볼 만큼 過激性이 잇는 行動은 生活上 要求를 背景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決코 危險한 實行이 實出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危險한 思想이 그 自體로도 生活環境이 그 思想을 受入할 만한 素質을 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나니 思想이 傳染되는 것도 生活環境의 缺欠으로 因함이오 그 思想이 危險線에 到達하는 것도 生活의 環境 或은 生活的 要求에 原因하나니 問題는 生活에 잇는 것이오 新聞雜誌에 잇는 것이 아니다. 아모리 危險한 思想이 新聞雜誌를 通하야 朝鮮에 入할지라도 朝鮮人의 生活을 隨하야 危險과 非危險이 判明될 것이오 아모리 新聞雜誌의 輸入을 嚴禁할지라도 朝鮮人의 生活的 要求가 그에 感應性이 豐富하면 日本內地에서 出版되는 新聞雜誌輸入禁止만으로는 此로 九牛一毛의 感이 잇다. 차라리 着眼點을 轉回하야 實生活에 對한 方策을 取하는 것이 可할 줄 밋는다.

社會改造의 社會學的考察 (一)

崔瑆淳 (寄)

理想이 豐富하며 恒常 進就의 氣象이 凌々한 個性은 恒常 不滿과 憤慨의 深淵中에서 彷徨하나니 如此한 相對性 現象은 吾人 人類個體에만 限하는 現象이 아니라 人類個體의 集成되는 國家, 社會도 亦然하며 生物界와 自然界도 亦然하도다. 無와 有, 黑暗과 光明, 戰爭과 平和, 破壞와 建設, 悲哀와 歡喜, 不滿과 滿足ㅡ 如此한 相對性 現象은 全宇宙現象의 根本이 되나니 如此한 相對性 宇宙現象을 떠나서 吾人은 『生成하여 가는 宇宙』를 概念치 못하며 立證치 못할지라. 實로 宇宙의 進展은 如此한 相對性 現象의 連續的 展開를 意味함이며 特히 吾人類社會에 在하여는 如此한 現象이 尤히 濃厚한 色彩를 呈함을 吾人은 否認할 수 업스니라. 故로 豐富한 理想과 進就의 氣象을 所有한 個性에 잇서서는 悲哀와 不滿의 深淵中에서 彷徨하는 그 反面에는 歡喜와 幸福의 曙光이 希望의 地平線上에서 躍動함을 發見할 수 잇스니 如此한 意味에서 理想的이며 進步的 人은 恒常 不滿을 感하는 者이며 且 現在의 自我의 不滿을 感하면서 自我의 完全에 向하야 奮鬪努力하는 人은 理想的이며 進步的 人이라고 云하겟스며 實로 光明과 活動, 希望과 幸福도 如此한 人의 게 有하다고 云할 것이다. 若 現在 自我에 對하야 絶對로 滿足을 感하는 者 有하다 하면 此는 理想의 痲痺 狀態에 陷한 人이라 換言하면 靜的이며 退化的인 人됨을 不免할지니 實로 不完全을 感으로써 完全을 向하야 不斷의 努力을 하는 其中에 人格의 調和的 發揮의 根本要素되는 自己活動과 自己實現이 表現될 줄로 밋나니라.

吾人은 社會는 個人의 抽象的 集成體이며 源一體인 것과 支配하는 個人의 意識及 感情이 社會心理를 形成한다는 것과 따라서 個人의 質이 社會의 質을 決定한다는 것을 是認할 時 理想的 進步的 個人이 支配數를 占有하는 社會도 亦是 理想的 進步的 社會됨을 肯定치 아니치 못할지니라. 個人이 一定한 目的論的 原理에 從하야 進就함과 如히 社會도 亦是 一定한 理想에 向하야 活動하며 且 個人의 理想이 時間과 環境의 變遷을 따라 變改하여 짐과 如히 社會의 理想도 亦是 大多數 個人의 統一的 理想의 變改를 따라 恒常 變改되나니 此가 社會理想의 一定不變됨을 容許치 안는 理由며 따라서 此現象을 吾人은 社會生長 又는 社會進步라 云하나니라. 此意味에서 吾人은 社會生長은 個人生長의 抽象的 集成的 表現이라 云하며 따라서 個人의 有形無形的 生長이 圓滿히 成遂되는 데에 圓滿한 社會生長의 現象을 發見할 수 잇나니라.

玆에 讀者의 注意를 換起코저 하는 것은 社會生長의 現象이 宇宙生成의 過程에서 現하는 一分科的 過程임과 如히 生長의 原理에 至하여도 人類社會는 宇宙의 一切現象에 比하야 其構成的 要素에 顯著한 性質的 差異가 有함을 不拘하고 宇宙生成의 共通的 原理의 支配를 受한다는 一事이니 實로 生의 最大開展에 向하야 進動하는 根本에 至하여는 人類社會와 他自然現象間에 何等의 相異點이 有함을 發見치 못할지니 生長의 方式에 至하야 宇宙現象은 自然法則의 支配를 受함에 反하야 人類社會는 內在的 法則의 支配를 受하는 데에 大相異點이 有함을 吾人은 看過치 못할지로다. 卽 宇宙의 一切現象은 他律的 無意識的 乃至 無目的的 活動에서 生長을 成遂함에 反하야 人類社會는 自律的 意識的 乃至 有目的的 活動에서 生長을 求하나니 社會의 諸般現象이 生物界의 現象과 相異한 것도 實로 此點에 在하며 且 生物界에 在하여는 其生長의 條件은 自然임에 反하야 人類社會에 在하야는 個人及 社會의 生長의 條件이 社會制度인 것도 또한 吾人으로 하여곰 人類社會가 生物界와 如何한 程度의 性質的 差異가 有한가를 看取케 하는 同時에 또한 社會制度가 人類生長에 如何히 至大한 關係를 有한가를 暗示하나니 實로 古今東西 如何한 民族의 生長 發達이나 個人及 國家社會의 生長 盛衰의 運命이 當時代의 社會制度의 如何에 依하야 直接 決定된다는 人類歷史의 返複的 活教訓에 照하야도 明白한 事實이라 하노라.

先導者 【80】

長白山人

중편(中篇) (九의 三)

비록 작년이래로 동지중에서 다소의 분렬이 생기고 백령회원중에도 다소의 동요는 생겻스나 그것은 한적은 부분이오 대다수는 여전히 선생을 복종하엿다. 그러나 모화노코 본즉 그네는 넘어도 무능력한 사람들이엇다 돈을 내대야 돈의 힘도 업고 다만 그네의 가진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맘과 선생의 지도를 밋는 맘 뿐이엇다. 선생을 밋어도 다만 한 지도자로 밋는 것처럼 밋는 것이 아니라 누구 신통한 재조와 모략을 가진 영웅처럼 미덧다. 선생에게 가장 고픈을 준 것은 회원의 분렬이나 동요보다도 그네의 태도가 유치한 것이엇다 아아 이러케 유치한 동지로 엇더케 일을 가치하랴 국가에 대한 리상을 실현하랴 십년!』 『십년!』 십년 동안 가라처야 할 것이다. 부탁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십년 동안 돈의 힘을 모화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시세는 십년까지 기다려 주지 아니할 모양이다. 민심은 날로 격앙하야 언케 무슨 일을 저질너서 일본에게 무슨 조흔 핑계를 줄는지 모르고 또 그 합병론자인 이등공 갓다 그런데 정부당국자의 거로석기하고 질투하는 맘은 나날이 더하며 가고 신황데의 곁에는 모조리 무는 일이나 못할 짓 업는 간교한 부리들과 모혀들엇슨즉 그들이 공명다툼으로 무슨 일을 할는지 알 수 업나 만일 한 사람이 련방론을 주장하야 일본정치가의 환심을 산다 하면 다른 한 사람은 반다시 합병론을 주창하야 그우혜 오르려 할 것이오 또 한 사람은 반드시 한국을 일본의 식민디로 하자는 론을 주창하야 다시 그우혜 오르려 할 것이라ㅡ 이러케 관찰한 선생의 눈에는 그 첫사람은 누구요, 첫사람의 우혜 오른다는 둘재 사람은 누구며 셋재 사람은 누구인 것까지 분명히 보엿다.

그리하거는 령참령가는 동지는 이러한 줄도 모르고 나라의 운명을 한 치씩 한 치씩 쏠아가는 일만 만들고 월반지사들도 도로혀 그편으로 쏠리려 한다. 선생의 심중은 날이 갈사록 더욱 괴롭지 아니할 수 업섯다 이 괴로옴과 오년 동안의 심신과로와 이것들이 합하야 이번 병을 일운 것이엇다.

× ×

병원에 입원한 동안 메출을 두고 지나간 일과 돌아올 일을 멧번이나 되푸리하엿다 그러나 점々 더 날이 지나고 몸이 쇠약할사록 그 생각은 차々 줄어지고 오래 니저버렷던 어렷슬 적 생각과 미국에 가 잇던 생각과 나라人일 아닌 례사人일이 하나씩 둘씩 생각나게 되엇나 말하자면 애국자의 생활이 잠간 쉬고 례사人사람의 생활이 돈는 뜨는 것이다.

선생은 구차한 생활에 자식들을 길우노라고 혼人 애쓰던 홀어머니를 생각하고 눈물도 흘녓다 미국서 처음 돌아오는 길도 가뵈올 적에 어느새 백발이 다 되신 어머니가 굽은 허리로 마당까지 나려와서 『항복이냐』하고 우시던 생각은 하고 도움엇다 그리고 재직년에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림종도 못한 것을 생각하고도 울엇다.

또 미국 가고 업는 새에 형님과 누님들이 아들 딸을 만히 나하 가지고 『아츰 저녁 쌀여먹을 것이나 잇는 것도 다 네덕이다』 하던 것을 생각할 때에도 모도 비참하엿다 그리고 압고개에서 이상하게 작별하던 과부의 일을 생각할 때에는 형언할 수 업시 불상한 맘이 생겨서 고통을 견되지 못하는 드시 고개를 흔들고 한숨을 쉬엿다.

差押不動產公賣公告

一、公賣物件 滯納者
垈二二坪九 樓下洞四三ノ一 尹在璿
垈三一坪 本町三ノ七〇ノ二 西村秀次郎
垈二七坪 苑南洞一四六ノ一 大西文三郎
田五五坪 崇仁洞一三五 玄暎運
垈九坪 太平町二ノ一二七 村松福松
垈二五坪 錦町二七 立花將愛
垈四四坪 御成町六七 荒田常吉
垈二八坪 安國洞一一二 金貞圭
垈二一坪 紅把洞一九八 崔允三
垈四〇坪 樓上洞六三 崔元泳
垈一九坪 樓上洞五八 地上木造
一棟建坪七坪四二
苑南洞二七四 全鳳根
垈二八坪 崇一洞一〇六 李亨鎬
垈四二坪 崇二洞八七 趙誠惇
垈七八坪 長沙洞八六 李明燾
垈一七坪 竹添町三ノ二二ノ一 曹卿順
垈六坪 玉川洞一二〇 金永勳
垈三一坪 徐相鎔
二、入札의 場所及日時
京城府廳財務課徵收係에서 大正十二年六月二十五日午前十時
右公賣함 買受希望者는 入札心得書並現場熟覽한 後 入札함이 可함
京城府

麻疾과 梅毒

잇는 治療와 藥劑를 써도 낫지 마는 無效히 苦心하시는 諸氏는 거저 말고 葉書로 通知하시오 如何한 數年의 慢性이라도 全治法을 無料로 進呈함
京城府舟橋町一三五 藥劑師 森青造
高麗商會 振替京城九〇九〇番

松旭齋天勝 文化奇術

六月十五日부터 毎夕六時開場
演藝種目
一、和洋音樂合奏
一、娘子連의 小奇術
一、各國流行딴쓰
一、滑稽奇術(아리카며 미란)
一、歌劇『日之出神樂』三場
一、天勝一座得意 大魔術數番
一、日本舞踊 上和音頭
一、文化的奇術
一、歌劇『眠草』一場
一、日本固有『水藝』 天勝
두번 보시기 어려운 천승양의 문화뎍 기술을 보시라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優待特約 電話本局三六二〇番

團成社

當六月十五日부터 新寫眞提供
▲米國유니버ㅡ살會社特作 國際時報 第十五號 全一卷
▲米國유니버ㅡ살社特作品 人情劇 自由의 鄕 全五卷
▲米國유니버ㅡ살 카ㅡ레映畫 文藝映畫 미드찬넬 全六卷
▲米國유社特作品 連續活劇 大魔王 全十八篇三十六卷 第七、八篇四卷上場
豫告 次回上場되는 名花 메리ㅡ시라ㅡ 이 主演 文藝大映畫 들의 꼿 全八卷
京城授恩洞 團成社 特約 유社 電話(本局)九五九番

天勝一座入場券

天勝一座의 入場券을 左記發賣店에서 買求하시는 분에게는 壹等券(一圓)에 サクラビール一本 貳等券(一圓五十錢)에 ミヨシノサイダー一本 進呈합니다
後援 朝鮮新聞社 サクラビール
◆天勝一座入場券發賣店◆
京城壽松洞八 孫基禎 / 京城長沙洞二二三 申道旭
同公平洞三〇一 一心商店 崔熙俊 / 同竹添町一五 商信商店 李鍾珪
同積善洞一二一 金昌奎 / 同鍾路公設市場內 景宇鉉
同積善洞二 太鎭浩 / 同鍾路一丁目四七 尹秉燮
同樂園洞二〇八 金弘心 / 同仁寺洞一三一 相光商店 金壽彬
同樂園洞九九 樂園氷店 劉漢禮 / 同仁寺洞一八二 永豐婦人商會
同武橋町六 金洪根 / 同嘉會洞一六五 文德浩
同京城西大門一丁目三 尹德煥 / 同清進洞一三七 金鍾聲
同竹添町一五 朴七石 / 同南大門通三丁目 德昌洋行

松旭齋天勝大一座 於朝鮮劇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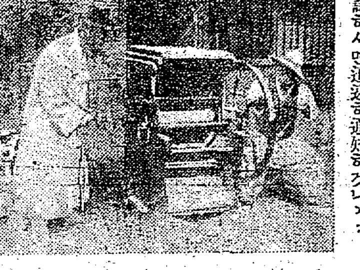
六月十五日부터 五日間 (毎日午後六時開演)
▼푸로ㅡ구람▲
一、小奇術 (千代子 信子 紫子)
二、羊天下 (一場) 伽劇 巖谷小波先生改作
◇攝政宮殿下 英國皇太子殿下 御臺覧
三、ボール奇術 (天海)
四、水藝 日本固有 (天勝)
五、滑稽奇術 (清野 天好)
六、文化奇術 (天勝) 早苗 清子
七、獨唱 짠스 タカネ 繁子
八、初演大小奇術 (天勝)
九、歌劇 眠草 (一場)
十、相生獅子 (天勝)

優良夏秋蠶種販賣

一、新屋、白龍、交配種
但一枚代金八十錢, 十枚以上五分引, 二十枚以上一割引, 五十枚以上一割九分引, 百枚以上三割引
富春全鮮에 亘하야 春蠶種의 宣傳大販賣한 結果는 全部最優等의 成績을 舉하야 禮狀이 積山余有한 斯界ㅡ 權威라고 稱贊을 밧아숨니다 即今은 夏秋蠶期節을 向하야 幸히 優良種多數製造 八月中旬까지는 何時던지 請求에 應하겟사오니 多少에 不拘하고 愛顧하심을 務望함니다
追代金引換希望의 분은 其半額前金郵送하시오
平安南道成川郡成川 斐鮮蠶業株式會社

穀物界의 新明星

唯一無二한 立米機가 發明되엿기로 諸賢괴 紹介하나이다 (實用新案第三壹〇二五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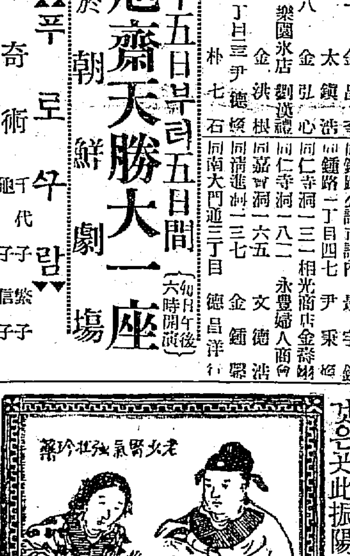
機械의 特徵
機械의 完全 價格 低廉
時間의 經濟 使用하기에 簡單
折米가 全無 米色이 良好
機械의 種類는 動力과 人力의 二種이 有함니다 詳細事는 書信으로 問議하시면 迅速히 通知하겟나이다
京城府岡崎町九九 洪淳敏鐵工場 龍山電話五六四番

普通學校國語讀本自習

朴重華 編纂
卷一二三 各拾五錢 送料各二錢 (卷三은六十頁 卷五는七十四頁)
本辭典은 體裁의 優美함과 解釋이 詳明함과 內容의 豐富한 것은 自然 斯界中에 最良한 辭書가 新刊되엿사오니 一次試讀하시옵
京城鍾路三丁目七一 廣文社 振替京城一一八五二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七 滙東書館 振替京城七一二
京城蓬萊町一丁目七七 新舊書林 振替京城二八五一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
京城觀水洞三〇 光東書局 振替京城四三五〇
京城鍾路二丁目八六 東洋書院 振替京城四九二
京城鍾路三丁目八五 永昌書館 振替京城六二三

稀世珍藥 振陽源

全世界에 唯一無二한 初有的 神藥이 出來?
百萬이라도나에 肉體가 不健實한 以上에는 欲望이 업나니?
…
虛者? 弱者? 諸位에 至今까지 渴望하시던 것은 곳 此振陽源이외다



主治効能
腎氣衰弱 早漏不快 見色倒戈
陰痿不起 遺精夢泄 氣血枯
下焦常冷 膝寒腰痛 病後氣乏
房後腦困 氣鬱積滯 消化不良
以上에 記擧한 外에도 身體上利益이 多大함
藥價 輕症用 二十日分 一劑 金拾圓也 重症用 四十五日分 一劑 金二拾圓也
【注文上의 注意】 注文時先金付送은 送料를 本商이 負擔하오니 引換代金은 送料를 必添計算하시요 注文者에 住所氏名을 明記하시요
本調劑處 京城府壽松洞參拾參番地 滿鮮賣藥商會

周衣次絕好品 改良細白芋

今般本商會에서 業務를 大擴張하옵고 左記와 如히 改良細芋를 直輸入하와 限一個月 元價로 販賣하오니 四方諸位는 此機會를 勿失하시고 陸續注文하심을 務望하나이다 但一疋以上만 取扱하오니 注文時에 品名과 號數及疋數를 詳細通知하시면 代金引換으로 迅速 注文에 應하겟나이다
◇特號 一疋 金九圓 ◇天號 一疋 金八圓 ◇地號 一疋 金七圓
但尺數는 朝鮮布尺 四十四尺이오 一疋에 周衣次 二件이오 婦女치마次 三件이 되오 五疋以上은 五十錢式 割引하옵고 此以上은 價額을 特別割引함
『男女學生 周衣次及 치마次 適好品』 色改良特芋 一疋 七圓五十錢 均一 一疋 四十四尺 學生周衣次 三件 치마次 四件이 되오
綢緞布木 改良細芋 直輸入商 朝鮮京畿道安城市場通 廣興商會 振替京城九二七九番 電話 一二四番 電話 三四番
(但注文時는 送料로 先金一圓을 要함)

우리사람의 唯一의 共同分配機關

時計店各位에게 謹告하옵나이다
우리同業界는 日進月加로 發展하는 現狀이오나 諸氏가 아시는 바와 如히 우리사람의 經營으로 된 都賣店은 一處의 開店을 보지 못하얏슴은 貴我의 同感이온 듯하옵나이다 此를 恒常 遺憾으로 생각한 弊店은 今般에 우리사람 唯一의 共同分配機關으로 都賣部를 開店하야 諸氏에게 될 수 잇는 데까지는 利益을 圖謀하겟사오니 우리는 우리사람의 손으로 幾分間이라도 利益을 共同치 아니하면 아니될 處地을 恒常念頭에 忘却치 마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同業者에 限하야 定價表를 進呈하겟사오니 時計部印에 捺印하시와 請求하시옵소서
大正十二年六月一日 宋在榮 謹告
營業品目, 各種時計, 各種附屬品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友助堂內』 宋榮商會 電話本局五〇二番 振替京城一八九五番
우리사람의 唯一의 共同分配機關

整腸保健 락도스다ー제 ラクトスターゼ

락도스다ー제는 메지니코프博士의 長壽說에 基하야 同이 應用되는 乳酸菌製劑로 腸內의 異常醱酵를 防止하고 膵汁及膽汁의 分泌를 旺盛케 하며 蛋白質의 消化吸收를 佳良케 하는 作用이 잇슴니다 다 腸疾患의 豫防及治療劑로 左記諸症에 推奬하는 바이올시다
慢性大腸加答兒、鼓腸症、常習便秘、慢性盲腸炎、腸性皮膚病、小兒便秘等。
實驗報告集이 잇소 請求하시는 대로 進呈함
各地有名藥舖에서 販賣함 類似品이 有하니 注意하시오
東京日本橋室町 三共株式會社 出張所 大阪道修町 同 臺北市表町

六〇六號代用內服藥

梅毒新藥 ヨートカリ丸 (요ー도가리丸)
此藥은 服用日부터 全身에 浸透되야 六〇六號同樣의 作用이 有하는 最高理想的 梅毒藥이올시다 服用后 一週日이면 多効함을 確認하시리다 說明書及使用法은 郵送通知하시는 대로 卽時 發送하겟슴니다
定價 試用 一圓 中瓶 三圓 大瓶 五圓
販賣所 京城黃金町二丁目 博愛堂 電話三一五一番 振替京城六一九八番

ClibPDF - www.fastio.com

英露紛糾解決乎
露國回答에 英政府滿足

英國政府는 露國通牒에 對한 回答을 起草中인바 此回答은 今週中에 發附될 듯한데 今番 露國의 保證은 滿足한 것으로 英露國의 紛糾를 解決함에 足한 것이라더라(倫敦十二日發)

露國의 對英回答內容

去五月廿九日付 英國政府의 對露通牒에 對한 回答은 漁業問題의 紛爭에 對하야는 英露間의 一般的 會議가 開催될 時外지 一時的 解決을 遂코저 하는 英國政府의 意見에 對하야 自進하야 此에 應할 뿐 아니라 『다비손』『스탄화ー드』事件에 關하야는 英政府에서 査定한 賠償金을 支拂하는 事에 同意한다는 旨를 述하고 更히 赤化宣傳에 關하야는 相互의 諒解를 正確로 英國通牒中에 提議된 不干涉聲明의 草案을 承認할 터이며 又露國政府는 英露가 聯合하야 調査한 結果 必要한 境遇에는 『카붐데라』로부터 勞農政府의 大使를 召還함에 同意한다고 陳述하얏더라(倫敦十二日發)

勃國新政府의 布告

革命新政府는 布告를 發하야 勃牙利는 『뉴이리』條約을 忠實히 遵守하고 一切의 軍事的 行爲를 排斥한다는 旨를 聲明하얏더라(倫敦十二日發)

國民新政府不承認

『소피아』當地勃牙利公使館에서는 左의 電報를 發表하얏더라(巴里十二日發)
勃牙利國民은 新不法政府를 承認치 아니하는바 『소피아』와 國內各地의 連絡을 斷絕케 하야 『소피아』를 孤立케 한 義勇軍은 約十萬人에 達하야 國境及『소피아』의 近郊地方을 警備하며 又政權을 奪還하고저 準備中이라云々

佛軍又獨人殺傷

『[illegible]』來電에 依하면 佛軍巡邏隊는 十一日夜 『[illegible]』市街上에서 威嚇된 故로 巡邏隊는 規定한 警告를 與하얏스나 解散을 不肯함으로 獨逸非戰鬪員群衆에 向하야 發砲한 結果 獨逸人六名의 殺者와 三名의 負傷者를 出하얏더라(巴里十二日發)

聯合國의 協定如何
獨逸賠償通牒問題에 對하야

獨逸의 賠償通牒問題에 對하야 聯合國 外交官 會談에서 英國外相『카손』卿는 佛國伊太利及白耳義大使와 會商한바 某方面에서는 佛國의 依然頑强한 態度를 固持함으로 聯合國間의 協定이 成立될 希望이 殆無하다 하나 然이나 一方英國委員은 最後의 協定成立을 絕望이라고 看做치 아니하고 可及的 同意로써 回答을 發하도록 하고저 商議中이라더라(倫敦十二日發)

英佛協定悲觀

獨逸의 賠償提議에 對하야 『포앙카레』內閣이 非妥協的 態度를 維持함으로 倫敦의 政界는 此로 因하야 頗히 陷落되는 듯하며 又英佛協定의 可能性에 就하야는 一般히 悲觀하더라(倫敦十三日發)

黎總統遂退位

黎大總統은 遂히 退位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退位後天津으로退去

黎總統은 退位한 後外交[illegible]名과 陸軍次長及三十名의 護衛兵을 引率하고 天津으로 退去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直隷派의 印綬强要

黎元洪氏는 十三日午後四時八分新站車站에 着하자 直隷派側에서는 大總統의 印綬를 引渡하라고 武裝한 保安隊로 此를 包圍하야 列車內에 監禁하얏더라(天津十三日發)

印綬는 直隷派에 手交

總統의 印綬는 黎元洪第一夫人의 手로 直隷派의 手에 引渡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黎總統退京近因

黎總統北京退去의 直接原因은 十三日正午馮玉祥氏가 黎總統의 即時北京退去를 要求하야 若此에 不應하면 部下의 大軍을 擧하야 入城할 터이라고 威嚇한 所以라더라(北京十三日發)

◇今般退位한 中國大總統黎元洪氏

退位後의 緊急措處
張氏를 迎入하야 總統事務攝行

黎總統退位後의 緊急措處로 國務院은 約法에 依하야 攝行總統이 될 國務總理張紹曾氏를 迎키 爲하야 特使를 派遣코자 하얏스나 直隷派는 張氏를 迎하기로 協議가 成立되얏슴으로 別히 特使는 派遣치 아니하얏스며 張氏는 十三日中에 歸京할터이라더라(北京十三日發)

張內閣復活公表

十三日午後零時國務院發表에 曰 『黎總統은 離職한 張國務總理는 可及的 早速히 天津으로부터 北京에 歸來하야 國務總理에 復活하리라』 公表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臨時攝政建議案

北京來電에 依하면 目下의 時局을 解決키 爲하야 參衆兩院으로부터 八名又는 十三名의 委員을 選出하야 臨時執政이 되고 更히 一名을 互選하야 臨時攝政으로 하야 正式總統의 選出과 同時에 交代할 建議案을 提出하얏는데 孫文, 黎元洪, 曹錕, 張作霖, 段祺瑞氏等의 七名을 執政으로 하야 南北統一問題, 總統問題及憲法問題를 解決코자 한다더라(上海十三日發)

大總統選擧審議
參衆兩院合同會議開催

十四日에 參衆兩院은 合同會議를 開하고 大總統選擧委員會를 組織할터인바 議員의 多數는 旣爲直隷派에 買收되얏슴으로 曹錕氏를 大總統으로 選擧할 것은 勿論인데 此에 對한 張作霖孫文派의 態度가 注目할 만하더라(北京十三日發)

曹錕派活動開始

黎總統은 後事를 顧[illegible]兩氏에게 委託한 後天津으로 退去하얏는데 今後張總理는 再次天津으로부터 來하야 內閣을 復活한 後豫定한 行動인 大總統選擧를 行할 터이나 다만 民黨議員이 北京을 撤退한다 함으로 曹錕派는 此境遇를 豫想하고 非常國會의 形式으로 總統을 選擧코저 企圖하는 바 此에 對하야 外交團은 甚히 注目하더라(北京十三日發)

衆議院會議延期

衆議院은 會議를 來十月十日外지 延期하기로 決定되얏스나 然이나 大總統問題는 아즉 討議에 上程치 아니하얏다더라(北京十三日發)

駐歐使節總歸乎

歐洲十個國에 駐箚한 中國公使十名은 連署로 上海交涉使를 經하야 公使團에 對하야 經費不足이 旣爲二十一個月에 及한 故로 辭職歸國 外他道가 無하다는 意味를 打電하얏더라(上海十三日發)

捕虜全部釋放

土匪의 人質外人並中國人全部는 十二日夕刻釋放되얏더라(北京十三日發)

公使團賠償問題審議決議

北京公使團은 會議를 開하고 臨城事件에 關하야 左와 如히 決議하얏더라(北京十三日發)

一、英米佛伊四國委員으로 組織된 第一國際委員會를 設한 後臨城事件에 關한 損害賠償問題를 審議할 事
二、右第一國際委員會外에 第二國際委員會를 設하야 中國鐵道를 利用하는 外人의 生命財産保護에 關한 問題를 審議할 事等인데 同委員은 全部委員을 選出할 權利가 有하다더라

排日惡化眞原因
米領事演說에 激動되얏다는說

長沙의 排日은 尙今繼續되는바 最近情報에 依하면 同事件의 擴大되야 問題가 될 때에는 許多한 原因이 有할 터이나 暴動이 勃發된 當初에 群衆이 各國領事館을 訪問하고 氣勢를 擧코자 할 時에 大部分은 面會를 避하얏슴에 不拘하고 唯獨米國領事가 暴徒의 代表者와 會見하야 演說한 故로 彼等은 俄然氣勢를 得하야 惡化된 것이라고 同地英國領事는 語하얏다더라(東京電)

孫文氏負傷說

孫文氏는 戰線을 視察中流彈으로 負傷하얏다는 說이 有하더라(廣東十二日發)

汕頭奪還在邇
許氏慶州에 到着

許崇智氏가 約二萬의 軍隊를 引率하고 慶州附近에 到着하얏는바 許崇智氏가 汕頭를 奪還할도 遼遠한 將來가 아닐 듯하다더라(廣東十二日發)

北京에新聞學校

北京大學米國部에서는 『코롬비아』大學의 新聞科에 模倣한 新聞學校를 五十萬弗의 資本으로 中國에 設置할 計畫을 發表하얏더라(華盛頓十日發)

馬克時勢其後

獨逸馬克時勢는 米一弗七萬四百三十馬克 日本一圓四萬八百九十八馬克으로 更히 下落하얏더라(倫敦十三日發)

요氏重態

日露交涉의 開始도 數日內에 切迫한 今日에 相對者인 『요페』氏가 十四日朝來로 容態가 急變하야 重態에 陷하얏스나 然이나 爾後의 經過는 良好하다더라(東京電)

其後經過

十四日午前零時半에 『요페』氏의 容態가 急變한 故로 醫師는 酸素吸入을 行한 後坂本博士에게 急報하야 一時에 博士가 來着診斷한 結果應急手當을 施한바 博士가 語하는 바에 依하면 요氏는 依然히 心臟의 發作이 十分되지 아니함으로 呼吸이 困難케 된 故로 酸素吸入을 行하얏는데 呼吸은 二十 脈은 七十二로 去四月熱海에서 狹心症이 起하얏든 時에 比하야 輕微하나 아즉 急變은 無하겟스나 然이나 今後數日은 絕對安靜이 必要함으로 面會는 一切謝絕하노라 云々

財政調査遂實施
昨日에 其規程發布
和田財務局長談

總督府에서 久히 問題中이든 財政調査機關은 昨日에 其規程이 發表되얏는바 全文은 七個條에 止하는 簡單한 規程이며 其實現에 對하야 和田財務局長은 語曰 財政調査는 國家經濟에 對하야 必要한 機關으로 從來此에 對한 論議가 紛々하얏는바 今番에 其規程을 發表케 되얏도다 然而今年度에 此에 配置할 豫算은 僅히 一萬圓을 計함에 不過함으로 그다지 큰 事業은 進行키 難하나 元來財政調査委員會의 目的은 財政에 屬한 部分만을 調査키로 作定하야 規程에 示한바와 如히 中央及地方財政에 關한 事項을 中心으로 其他產業財政及普通學校費或은 學校組合費等에 關한 事項에 限하야 調査코자 하며 一般財界에 關한 것은 此를 調査치 아니할 터이며 委員은 當分間八九人假量을 任命할 터이나 委員長인 政務總監이 方今不在中임으로 其歸任을 待하야 會議를 開하야 決定키 되얏스며 委員은 高等官中에서 此를 兼任케 할터임으로 俸給에 對한 經費는 要치 아니할 터이오 但數人의 雇員을 置할 計畫이로라 規程中에 特別한 學識者를 委員으로 任命한다는 條項이 有하나 此는 將來에 其規模를 擴大한 後에나 此에 應함을 要할 것이오 現在의 狀態로는 其必要를 感치 아니하노라 例컨대 土木關係財政調査等은 其他各其專門的關係官으로써도 可及的其當該主任官吏로써 委員을 兼任케 할터임으로 有給委員은 當分間必要가 無하도다 如何間不日內로 實行코자 하노라云々

朝鮮財政調査委員會規程

第一條 中央及地方財政에 關한 事項을 調査키 爲하야 朝鮮總督府에 朝鮮財政調査委員會를 置함
第二條 朝鮮財政調査委員會는 委員長一人及委員若干人으로 此를 組織함
第三條 委員長은 朝鮮總督府政務總監으로써 充함 委員은 朝鮮總督府高等官中에서 朝鮮總督이 此를 命함 調査上必要가 有한 時는 朝鮮總督府高等官中에서 臨時委員을 命하며 又學識經驗이 有한 者에게 臨時委員을 囑託함을 得함
第四條 委員長은 會務를 總理함 委員長이 事故가 有한 時는 委員長의 指定한 委員이 其事務를 代理함
第五條 委員長은 特히 調査를 要할 事項에 對하야는 特別委員을 指定하야 此의 調査를 爲케 함을 得함
第六條 朝鮮財政調査委員會에 幹事를 置하고 朝鮮總督府高等官中에서 此를 命함 幹事는 委員長의 指揮를 承하야 庶務를 整理함
第七條 朝鮮財政調査委員會에 書記를 置하고 朝鮮總督府判任官中에서 此를 命함 書記는 委員長及幹事의 指揮를 承하야 庶務에 從事함

中等校長會議
十四日부터

全朝鮮官立中等學校長會議는 昨十四日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하고 齋藤總督長野學務局長을 始하야 各道高等官과 中學校長이 會同하야 議事를 進行하얏는바 其席上에서 齋藤總督의 訓示及長野局長의 訓示及指示事項은 左와 如하더라

齋藤總督訓示

玆에 各位의 會同을 機하야 一言의 所懷를 陳코자 하노라 歐洲戰後各國은 和平하야 敎育에 力을 用함은 文化의 向上과 民力의 增進을 促하야 國家社會의 健全한 發達을 企圖함에 不外하도다 我朝鮮의 開發도 敎育의 進步로써 此의 根本을 立함은 言을 不俟할 바이며 此로써 數年來普通敎育施設의 擴張改善에 注하야 今에 諸般의 敎育機關은 漸次整備의 緖에 就하며 國立大學도 近히 其創設을 見함에 至하얏도다 然而此等敎育機關의 實質과 內容의 向上充實에 關하야는 今後의 施設에 待할 바이 多할은 勿論就中實際敎育의 任에 當한 者의 齋勵努力에 依할 바 頗大하도다 各位는 克히 部下職員과 協力하야 朝鮮文化의 向上에 裨補케 할 此趣旨를 期할지로다 晩近思想의 變遷은 往々其適歸에 惑하야 靑年子弟로 分에 背하는 者가 不無함은 甚히 國家의 深憂에 不堪할 바이니 各位는 一層奮勵하야 學生의 指導誘掖에 努力을 竭하야 國家育英의 本旨에 悖치 아니케 함을 期할지어다

指示事項

一、生徒의 風紀監督에 關한 件
二、中等學校入學試驗에 關한 件
三、敎員의 充實에 關한 件
四、朝鮮事情의 研究에 關한 件
五、敎員試驗受驗獎勵에 關한 件
六、實業敎育의 獎勵에 關한 件
七、朝鮮人卒業者의 上級學校入學에 關한 件
八、豫算經理에 關한 件
九、學校衛生에 關한 件
十、中等敎科書編纂의 趣意에 關한 件
十一、中等敎科書普及에 關한 件

李王職官制改正

十四日의 官報에 皇室令第九號乃至第十一號로써 李王職官制宮內官任用令中改正의 件을 公布하고 即日施行할터이라는바 其要旨는 王公家의 樞要機關에 關한 事項을 調査하며 兼하야 各殿下의 直接通譯을 掌키 爲하야 李王職에 專任通譯官(高等官四等以下)一名을 置하고 俸給의 最高額을 二千八百圓으로 하고 此任에 對하야는 特別技能을 有할 事를 必要로 한다더라(東京電)

春蠶豐作
總收量十五萬貫

朝鮮本年度의 春蠶收繭額에 就하야는 目下總督府에서 調査中인바 大體豫想에 依하면 掃立當時의 氣候가 不順하얏스나 其後漸次恢復되야 桑葉의 發育이 良好함으로 當業者가 斯界의 好勢에 刺激되야 一般히 多量의 飼育準備를 하얏는바 蠶兒의 生育도 頗히 良好함으로 近年稀有한 好成績을 收하리라는데 目下掃立及收繭額은

掃立 四三〇,〇〇〇枚
收繭額 一五五,〇〇〇石

을 不下하리라는바 此를 前年에 比較하면 掃立은 一割五分의 增加요 收繭額은 三割의 增加라 하며 特히 全羅南北道等은 一般히 良好하며 特히 全羅南道地方產은 日本九州地方의 諸繭에 比하야 少毫도 遜色이 無하다 하며 如斯優良한 成績을 收하는 所以는 上述함과 如히 氣候의 順適으로 掃立枚數가 多함과 尙且昨年外지 總掃立枚數中에 七割五分內外이든 交配雜種의 掃立이 本年에는 九割餘로 顯著히 增加함에 因함이라더라

內務次官後任

堀田內務次官은 病을 靜養키 爲하야 辭意를 漏洩한 結果 近々聽許될 터인데 其後任에는 大阪府知事井上孝哉氏가 選任되리라더라(東京電)

商工黨加入者
一千六百名

武藤山治氏의 提唱인 商工黨加入者는 千五六百人에 達한바 有力者中에는 衷心으로 贊成하나 表面에 立하기를 不俟하는 者도 有한데 今後常任準備委員으로 活動하기로 決定한 人은 添田壽一氏外三十六名인바 此等의 多數는 各都賀商及市場組合等의 有力者이더라(東京電)

朝鮮初有의 水銀鑛發見

黃海道金川에서 總督府鑛務課에서는 去五月二十一日森本, 吉松二人으로부터 黃海道金川郡金川, 古東兩面에 亘하는 水銀鑛十八萬坪의 鑛業權設定出願이 有하얏는바 由來水銀은 朝鮮에서는 全然產出치 아니한다 하야 鑛務課에서는 其後出願者等의 提出한 原鑛을 精密히 調査한 結果 其他에 銅鑛도 有하야 水銀鑛인 事가 判明되얏슴으로 主任技師等이 繼續調査中이라는데 良好한 水銀鑛區임을 發見하고 各地金鑛業者가 [illegible] 原料도 多大히 需要될지며 一方으로 金鑛業者의 蒙하는 利益이 不少하리라는데 原鑛은 片麻岩類似의 者로 其中에 粟粒大의 水銀粒이 點在한 것이라더라

各地金融狀況

朝鮮銀行支店에서 調査한 客月中各地金融狀況을 揭記하면 左와 如하더라

大邱 市況이 一般히 不振하얏슴으로 當地金融은 別로 新資金의 需要가 無하고 一面으로는 昨年度의 製絲資金을 殆히 當月에 回收를 見하얏슴으로 貸出은 激減하고 預金은 特殊預金의 引出로 多少減少하얏스나 今後는 閑散한 中에 越月하야 [illegible] 出廻에 伴하야 資金의 需要가 有할 것으로 組合銀行은 緊縮의 氣勢가 有하더라

平壤 一般商況은 端午名節用品買入期와 電車展覽會開催로 相當히 賣買가 有하얏스나 [illegible] 金融界는 平凡閑散裡에 越月하야 [illegible] 組合銀行의 預金貸出殘高를 見하면 預金合計는 五百六十六萬三百四十九圓 貸出合計는 一千七百四十六萬四百四十七圓이더라

群山 一般市況은 前月과 大差가 無히 閑散하얏는바 米穀은 好調로 特히 高價임으로 南鮮各地의 貨物이 集注하야 正米入荷가 多量에 及하얏스나 新規資金의 需要를 喚起함에 未至하고 一方日本移出도 [illegible]

清津 市況은 好況을 呈함에 當地築港起工式의 擧行이 有하야 稀有의 盛況이 엿스나 金融은 雜貨資金의 終了와 移出貨物의 回收로 因하야 此方面貸付는 減少하얏스나 材木漁業及諸雜貨의 輸入資金의 移動으로 前月과 如히 [illegible] 月末當地三銀行의 帳末은 預金百十六萬 貸出四百五十五萬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預金은 三萬圓 貸出은 六十二萬圓의 減少이더라

鎭南浦 一般市況이 活潑하얏슴으로 新規買入資金과 荷爲替資金의 需要가 旺盛하야 金融은 繁忙을 呈하얏는바 五月中當港貿易은 輸移出二百四十五萬九千圓 輸移入百七十六萬三千圓으로 前月에 比하야 輸移出은 百三十六萬四千圓 輸移入은 九十萬六千圓의 激增을 示하얏더라

會寧 市況이 不振하얏슴으로 木材工事資金을 除한 外에는 資金의 需要가 無하고 閑散한 狀態를 未免하얏는바 當地銀行의 預金總額은 [illegible]五十萬八千圓 貸出總額은 [illegible]一千圓으로 前月末에 比하야 預金은 二萬二千圓이 增加하얏고 貸出은 [illegible]萬九千圓이 減少하얏더라

支店銀行의預金
依然資金流出

五月末現在京龍間의 支店銀行預金貸出狀況을 見하면 京城에 支店을 有한 者第一, 百三十, 十八及山口四行이며 又龍山에는 十八銀行의 新設龍山支店外에 實業銀行龍山支店의 三行이 有한바 京城의 支店銀行預金總額은 一千八百二萬五千二百十圓 [illegible] 龍山에 在한 支店銀行의 預金總額은 二百五萬六千四百二十圓 貸出總額은 五十四萬二千三百二十九圓인데 京城側支店銀行의 預金貸出帳末에 依하면 貸出超過額合計는 九百十三萬三千二百七十九圓의 多額에 對하야 [illegible]

資金 의 日本流出의 筆頭를 占하는 第一銀行京城支店은 預金總額一千五十一萬八千四百七十圓에 對한 貸出이 [illegible] 預金額의 半에 不過한 狀態이더라

府尹郡守會議

京畿道에서는 十四日부터 十六日外지 三日間豫定으로 左記日程에 依하야 管內府尹郡守會議를 開催한다더라
第一日(十四日) 知事訓示及府尹郡守에 對한 指示事項
第二日(十五日) 諮問事項答申
第三日(十六日) 協議事項會議並府尹郡守提出意見
은 午前九時부터 午後四時外지이며 會場은 道會議室이더라

橫說竪說

▲最近李王職에서는 官制를 改正하야 新히 通譯官一人을 置하기로 決定하얏다 ▲此가 破產宣告의 申請을 當한 閔泳綺君의 長官就任後初事業이라는가 ▲其理由는 李王家樞機의 通譯에 從事케 하기 爲하야 相當히 朝鮮語에 熟練한 日本人을 奏任官으로 任用하는 것이라 한다 ▲即王家의 樞機를 朝鮮人官吏의게 알니지 아니할 計策으로 此案이 發明된 것이다 ▲그런데 此通譯官의 設置가 무엇이 그다지 緊急하든지 李王職에서는 改正官制가 發表되기도 前에 內容으로는 通譯官될 사람을 作定하야 二月前부터 每日出勤케 하고 李王職內에서는 其人을 通譯官이라고 불리왓다 ▲此亦一種의 官紀紊亂이 아닐는지 ▲自家의 破產申請을 當하도록 家政을 紊亂케 하든 手腕으로 通譯官이나 쉬고 倭城臺에 가서 納諂이나 하고 所謂『李王家의 事務를 總轄監督』하다가는 終末의 累가 自身에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辭令

總督府鑛務局長 丸山鶴吉
警察官講習所長事務取扱을 命함(十日付)
朝鮮總督府遞信技師 高橋齊
朝鮮總督府技師(二等) 岩井長三郎
兼任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技師(二等)
朝鮮總督府郡守 [illegible]
慈惠醫院醫官 荒井金三郎
總督府公立中學校敎諭 相川富三郎
依願免本官(各通)
總督府實業學校敎諭中非 [illegible]
朝鮮總督府屬兼道視學 [illegible]
京城高等工業學校敎授 高橋 [illegible]
任總督府視學官
兼京城高等工業學校敎授(六等)
休職和歌山縣技師 古關太平治
任朝鮮總督府道技師(五等)
(以上十三日附)
朝鮮總督府公立實業學校敎諭 齋藤惟一
任朝鮮總督府公立實業學校敎諭(七等)

消息

▲西村保吉氏(殖產局長)十三日付로 群山府, 全州郡, 益山郡及沃溝郡에 出張被命
▲朴重陽氏(忠北知事)十三日付로 全北管內에 出張被命
▲玄俊鎬氏(湖南銀行專務)十四日入京三日間滯在後釜山에 向할 豫定
▲靑木戒三氏(專賣局長)十三日付로 大邱에 出張被命
▲勞働大會에서는 今般其會館을 市內貫金町二丁目二十二番地로 移轉하얏더라

特殊郵便取扱數

京城局의 府內各局所取扱에 係한 大正十二年五月中書留及價格表記通常郵便物總數는 引受八萬八千六百九十二通 配達七萬四千二百二十通으로 此를 前年同期에 比할 時는 引受에 在하야 一割七分 配達에 在하야 三割七分九厘의 增加를 示하얏더라

私鐵社長選任難

朝鮮私設鐵道의 合同한 朝鮮鐵道의 社長選任은 役員의 人選에 就하야 方今鐵道部長及殖產局長과 [illegible] 總督府에 一任하얏는바 總督府로서는 中央鐵道社長이든 前滿鐵社長野村龍太郎氏를 社長으로 推薦한 模樣인데 此에 對하야 一部에서는 從來各會社와 關係가 無한 者를 希望함으로 目下確定치 못한 狀態에 在하다더라(東京電)

商況

◎鮮銀行券(十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銀狀況(十二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以上千圓單位)

◎日本金利(十三日)
(一錢單位)
普通割引步合 [illegible]
當座貸 [illegible]
無條件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十四日發電)

倫敦銀塊

同日倫敦銀塊市場의 銀塊時勢는 三十一片四分之三으로 前電보다 一片下落하얏는바 (銀塊는 一온스는 卽七匁六分이오 一片은 四錢一厘)

紐育銀塊

同日紐育銀塊市場의 銀塊時勢는 電報未着이오 (銀塊는 同上仙은 二錢)

紐育棉花

同日紐育棉花市場의 棉花時勢는 前電보다 四十碼下落하야 入電하다 (現物買値) 百磅이오 一碼는 十二兩重

大阪株式
十四日 前場

株名	寄付	大引
大株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商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東紡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大阪株式延取引

株名		
大新	[illegible]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illegible]

株式市場

諸株保時勢
大新少高

十四日京取市場에 合地氣配入電은 安東安取는 十八圓五六十錢에 大阪新은 七十八圓六十錢이며 鐘紡新은 二百八十七圓五十錢으로 底强하게 報道되나 本場人氣는 依然材料無와 大勢不況으로 [illegible]

勸信貸株
社長武內氏談

京取市場開業以來에 初有한 仕手戰으로 解合問題는 一般의 [illegible] 勸信側에서 [illegible] 長武內氏는 [illegible] 市場의 失態를 [illegible] 株主更新金에 代用하얏슴은 確認이라 하더라

京株賣買高

十四日의 京株市場의 賣買成立高는 如左하더라

甲部 五百八十枚
乙部 一
短期 一千五十枚

短期取引

十四日	前場	後場
大新	[illegible]	[illegible]
仁取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中鐵新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京株賣買價(十四日)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上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漢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鮮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鮮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電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釜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殖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中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名	前場 今週	前場 來週	後場 今週	後場 來週
圖們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剛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南鮮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現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勸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穀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繭時勢

最近各地方繭時勢는 如左하야 當局에 入電되얏더라

十一日 忠南公州에서는 生繭十貫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百三十四圓 最低七十四圓 賣買四百貫 [illegible]
十一日 忠南大田에서는 生繭十貫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百三十九圓 最低八十六圓 賣買一千九百十五貫
同日 忠南溫泉里에서는 乾繭一石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百三十六圓 最低八十六圓 賣買百十四石 [illegible]
同日 慶北安東에서는 生繭十貫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百八十圓 最低七十圓 賣買五百五十錢의 比로 總數量二千二百十三貫
同日 慶北尙州에서는 生繭十貫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百十圓 最低五十二圓五十錢 賣買九十六圓二十五錢의 比로 總數量二千七百八十五貫 去來되고
同日 京畿水原에서는 乾繭一石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九十六圓 最低六十六圓 賣買八十二石 去來되고
十二日 忠南公州에서는 生繭十貫에 對하야 交雜種白繭最高一百三十四圓 最低七十五圓七錢 賣買三十二錢의 比로 總數量二百二十貫 賣買되얏다더라

仁川期米市場
買人氣旺盛

以來硬軍의 常勝의 勢로 延月이 當限에 一致함을 따라 各地場面은 上勢되며 一般心理와 氣勢를 新高價를 示하나 今月初에는 以來回理이 되는 大阪地三十七圓과 當地三十一圓五十錢外지 新高價를 示한바 其後로는 反應 [illegible] 云々硬軍으로도 一向攻勢를 [illegible] 硬軍의 [illegible] 於是乎 一圓臺門도 開下함에 至하니 [illegible] 今期는 [illegible] 保勢인가?

◎橫濱生糸(十四日)
現物 一二,〇〇〇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商況 昨日阪地步調는 前場初付三十七圓에 始하야 二節에 〇八錢外지 高步되얏스나 彼此守勢를 固執함으로 前場十節후안에 七圓을 七次하 [illegible] 二十錢이라 ○五錢外지 低價로 五十六錢을 徵三次反覆하더니 〇六錢으로 場을 止한 後各地氣配는 多少强한 便으로 傳하얏고 數日內로는 場 [illegible]

仁川米豆取引所仲買人 張最根 仁川府港町五丁目 仁川米穀取引所仲買人

阪地今朝步調는 三期共히 各一文式 錢이라 氣配少强하던 昨止보다 一文弱하게 三十一圓〇三錢으로 初付하다
▲第二節 當은 二十九圓四十一錢에 八九錢에서 相次하다가 二十九錢으로 當限은 一口有하던 先限은 阪地四節以後 ▲第三節 當은 不成에 中은 十錢에 ▲第五節 當은 不成에 中은 二十一錢에 止하다 (以下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初付	三十一圓三錢	[illegible]	[illegible]
止値	三十一圓十錢	[illegible]	[illegible]
高値	三十一圓三十錢	[illegible]	[illegible]

今朝天候는晩仁拜啊晴天에各地三圓九十一錢이라…[illegible]…

創造派가繼續開會하고
憲法을制定通過
독립운동의최고권위는
국민대표회의에잇다고

국민대표회의의 분렬은 종래서 로라협되지 못하고 개조파대표 사십여인이 불참한대로 창조파 (創造派)대표 사십여인만 회의를계속하야국호를한국(韓國)으로고치고 년호는 단군기원을쓰지는결의를하엿스며 륙월륙일에도법조계 모커에서 계속개회하고헌법(憲法)을만드러 통과하엿는데 전문십필조로 독립운동의최고권위를 국민대표회의에 두고삼년마다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하야 그속에서 국민의원삼십인이상오십인이하를 뽑아 립법(立法)과행정(行政)을하야 나가되 국민의원속에서 다시집행의원(執行委員)을뽑아실무를지휘하게하는것이며 강령은 한국국민은 독립운동을위하야 생명과 재산을희생할것이며 일체권리를독립운동자가가지고독립운동을계속하는동시에독립운동반대자를엄벌하는것이더라(상해)

령을 하락지아니하고 비밀속에 장래방침을 의론하는중이며 칠일오후까지 아모결뎡의 발표가 되지아니하엿더라(상해)

改造派代表
徹夜하야會議
칠일에도계속밀의

개조파대표 몃사람은 시국수습에대하야 륙일밤에는 한잠도자지못하고 선후책을 강구하엿스며 칠날에도계속하야 비밀회의를하는중이더라(상해)

內務總長이
解散命令
륙월이일이후의 결의사항은무효

국민대표회의를 창조파만 계속하야 국호와년호와 새헌법을데뎡하는데대하야 륙월륙일 밤에 상해림시정부 내무총장은 해산을명한다 하엿는데「그리유는소수인의집회로 국호 년호와헌법을데뎡함은 불가한 일이니륙월이일이후의 결의사항의 작소를명하는동시에 대표회도 해산을명한다」하엿더라 (상해)

國務院
創造幹部聲討
단독개회를비난하야

이외에국무원포고데삼호(國務院佈告第三號)로창조파의 간부 모々씨를 성토하는 포고를발하엿는데「그리유는 개조파가불참하는데회의를진행하야국호와년호를 변경함은 림시정부외에정부를또세우는것이라이는민족의공동긔초를 공고케하는 정신을배은것이니성토한다」하엿더라(상해)

居留民大會
선후책을강구

시국에대하야 상해에 재류하는 오백여명의 우리동포는 선후책을강구하기위하야 칠일밤에 법조계모커에서 거류민대회(居留民大會)를 열게되엿더라(상해)

創造派密會
칠일오후까지는 아모발표도업다

시국에대한 여론이 비등함에대하야 창조파사십여인대표도 밤

鴨綠江漲水
련일비가나려서

지나간구일부터 비가오기를시작하야 삼사일간 련하야쓰치지아니하고 음으로 압록강에물이점々붑어야삼척까지나르럿는데홍수가 맹렬하야 신하왕래가극히불편하다더라(신의주)

二十萬圓은郡民이
부담할터이니이등도로를 우리골로내주오하는진정

강원도양양군(江原道襄陽郡)에잇는이등도로긔성동맹회(二等道路期成同盟會)대표자 리홍명(李鴻榮)리석범(李錫範)량씨는그군긔로로 문데에대하야 진정하랴고 십이일밤에 경성에드러와 십삼일에는 원토목부당(原土木部長)을뎡동(貞洞)에바문하엿스며다시십사일에는 총독부에 재등(齋藤)총독과대총(大塚)내무국당을방문하고 여러가지로진술한바가 잇섯는데 이제그내용을 듯건대 강원도 동편에잇는각군은모다 수원(水原)에나 경성(京城)으로통하는이등도로가 잇스나 양양수만은 흘로그러한도로가 업스며 처음에 예뎡선이엇든 경성양양선도 공비관계로그만 중지되고다른군내로 가게된터이라 이제경성양양선과그변경선(變更線)인경성옥호동(玉湖洞)선과의

공비차액 은 모다양양군민과 기타관계자가 부담할터이즉 경성 양양선을 긔어히 부활식혀달나는진정이라경성양양선이 경성옥호동선과 부리되는부기뎜은원동리(元洞里)인대그곳에서 두곳의거리가 모다일백십머리밧게 되지아니하나 양々선은도중에오색령(五色嶺)이라는큰고개가 잇슴으로 그공비의차익은실로이십여만원이나되는데 그막대한 금외를양々군민이 부담할터인즉 총독부에서는 이에 주칭하야 그양々선을실현하여달나는것이라더라

禮山問題
結局은道當局에
팔미리를하엿다

수일동안 총독부에가서 산판한무뮤데로 진칭중이든 례산인민대표지일동은서촌(西村)식산국당과 면회를한결과 좌우간충청남도도지사와 시비곡직을 본뒤가려가지고 오라하는말을 드러 재작십사일중에 전부도라갓는대 일동은다시 충청남도도령에가서엇지던지 도토기로작뎡이라더라

平和의母
『펜, 아담쓰』녀사 장미의조선호텔에 십오일오후에강연

조선호텔에는 다시세계『평화의머니』라하는귀한손님을 마자드렷다 그는즉만국평화협회회장『펜, 아담쓰』녀사(三六)이니동녀사는일즉이세계평화에한몸을바치기위하야만흔쥐술과씩々한강연의자최를도처에남기어거의세계에그의일홈을모를이가업는터이다동녀사는이처로부터륙십삼년전에미국『네리노이스』주『시카고』시에나서『위스칸손』주립대학을졸업한후 즉시

법학박사 가되얏다 그는평화를위하야몬저미국에『헐우스』를 여러만흔사람을위하야노력하얏스며 차々 그의명성이놉하감을 조차 실로다수한 단데의 수업는직칙을맛게되얏스니『국제녀자평화의원』『녀자평화당수령』『반군벌미국련맹집행위원』『국제녀자대회당』등이그것이다 그는 작년십월에고국을떠나『파란』에서나는만국평화회의에 열석하엿다가다시『불난서』로갓다가『인도』『중국』등으로 주류하며 일반사회시설을시찰한후 경성에까지 이른것인대경성에서는 십칠일까지 삼일간묵을예뎡이며 금십오일오후네시부터는국제친화회주최로시내당곡천뎡 은행집회소에서『평화의어머니』로서의 강연이 잇겟다더라

在京主義者를中心으로
重大事件發生乎
각경찰서에서련일대활동중 사건의내용은극비밀에부처
日本共産黨事件의波及

일본에서 사회주의자(社會主義者)들의대음모가발각되야 세상의이목을 놀나게한 사실은 보도한바어니와 이와관련으로하야 조선에서도 각디방경찰서에서는 눈을번득여 오던터이는데 특히부산수상서(釜山水上署)에서는일본서 조선으로건너오는주의자들의행동을엄중히감시하며부내의각경찰서에서도련락하야련일시내를경계하든중시내의시찰이 매가진풍설로만커니와재작일밤종로경찰서(鍾路署)에서는 모중대사건의 단서를어덧든지 즉시활동을 개시하야시내수표뎡 조선교육회(水標町朝鮮教育會)안에잇는권병길(權炳吉)(二九)을검속하얏는데 권병길은견지동 조선청년회 련합회(朝鮮青年會聯合會)집사로『에쓰페란토』를연구하는 일본사회주의자에게서『에쓰페란토』를배우든관계로그와가치감속된듯하바그리면에는자못중대한사실이잇는듯하나 당국자는 절대로내용을비밀에부침으로자세히는알수업다더라

에쓰페란토研究會를
包圍搜索
주의자네명검속

연일경계하든시내각경찰서에서는작일오전에이르러일층긴장하야 삼륜 종로서고등계주임(三輪鍾路署高等係主任)과 본뎡서고등계 (本町署高等係) 정상경부(井上警部)가서대문경찰서 (西大門警察署)에출장하야 서당과비밀히 의론한결과 동서에서는각서와련락하야 시내에잇는 주의자들을 경계하기로하고 위선평동이십오번디(平洞二十五)의집에쓰페란토』연구회(研究會)를에워싸고 가택수색을하는 동시에『에쓰페란토』를연구하는사회주의자수명을 검속하얏는데그연구회는 일마전 일본으로부터조선에들어와서『에쓰페란토』를선전하든대산(大山)씨가주관하든것이라하며 본뎡서에도 수

貯金利用의詐欺事件
詐欺額萬四千圓
범죄건수가백여건의다수

우편저금 (郵便貯金)을 위조하야 오천여원의막대한금외을 사긔한 리흥준(李興俊)박동원(朴東元)등은 다시시내각은행의소절수(小切手)와 우편국의 위데(爲替)등을 위조하야 막대한금외를 사긔하엿슴으로 경긔도경찰부 형사과(刑事課)에서는 계속활동중이라함은 본보에 임의보도한바이어니와 이제 그자세한내용을듯건대 전긔리흥준 박동원등 십여명은 대정팔년이래로 각은행에예금을하엿다가 그소절수를변조하야 막대한 금익을사긔하고 또는 인천(仁川)수원(水原)문산(汶山) 량진(鷺梁津)등우편소에서 공모자에게돈을보내며 그소위데(小爲替)을변조하야가지고 역시다수한 금외를 사긔하엿는데 소절수와 위데를사긔한 금외이 대정팔년이래로 지나간오월초순까지 모합 일만사천오십구원에 달하엿스며 그자세한통계를들면 다음과갓더라

◇小切手詐欺

韓一銀行東大門支店	六〇〇圓
同 西大門支店	八三〇圓
第一銀行京城支店	五〇〇〇圓
漢城銀行東大門支店	三〇六九圓
同 東大門支店	二〇〇〇圓

◇小爲替詐欺

寬勳洞郵便所	六八〇圓
黃金町二丁目郵便所	二四〇圓
同 三丁目郵便所	四〇〇圓
鍾路三丁目郵便所	三二〇圓
本町五丁目郵便所	八〇圓
苑南洞郵便所	四〇圓
通義洞郵便所	五〇〇圓
鍾路郵便所	六〇〇圓
京城郵便局	一一〇〇圓
南大門郵便局	一二〇〇圓
此外百餘件	

逮捕에非常苦心
檢事局行八人
범죄방법이극히교묘하야잡기에곤난햇다

이소절수와 소위데를 변조사긔한사실은 일본에도 별로업는희귀한사실로 경긔부 형사과에서는 시내각처의소절수 소위데의사긔사실이 빈발한다는 말을듯고 금년녀래로 활동을개시하야 그범인을잡고 크게노력하엿스나 그들의범행은 극히교묘하야 용이히 그단서를엇지못하엿다가 지나간오월 초순경에야 그단서를엇어가지고 그들을대포하엿는데 아직도 데포되지못한자가다수하다하며이번사건에관계되야 취조를맛치고 검사국으로넘어간자는 다음과갓더라

市內八判洞一〇八 申銘吉(三五)
通洞一二〇 朴東元(二七)
授恩洞一二三 朴東臣(三六)
通洞一二〇 許萬碩(四三)
東崇洞一三一 朴範植(四〇)
仁義洞一六〇 許一炯(三六)
忠信洞一八 洪祖學(四二)
鳳翼洞九五 許萬弼(不拘束)
未逮捕者
住所不詳 李興俊(四四)
住所不定 鄭然三(三四)
住所不詳 李命寬(三六)
其外數名

後悔의自殺
발각되야미수

사긔주인의 돈을써 쓰다가발각되야 자긔의행동이 올치못함을절々히 깨닷고드되여 세상을버리려고한자가잇다시내당교뎡니십구번디(長橋町二九)삼화상하는김사명(金思明)의뎜방에서심바람하는 민응복(閔應福)(一七)는자작일오전열한시경에그집변소에 들어가서 넉사가량되는무넘으로 목을매여 격ㅡ로달니고민 하는것을 가치잇던 김대복(金大福)이가 발견하야 즉시 경찰서에 알리는 동시에세부란스 병원에 입원케하고 급지료를 하야 생명은 별ㄴ의대하지안타는데 이제 내용을 듯거대 전긔 민응복은수인의물건판돈삼십원과남에게서바든돈삽십원모다륙십원을 주인도 모르게시녀(新町)류리집에돌아다니면서써버린일이 발각되야 주인에게수종을듯고 자긔의 허물을뉘우치는동시에 그와가치 죽으려한것이라더라

朔州에獨立團
무장독립단이 군자금을모집

지난일일 오후팔시경에 무장한독립단삼명이 평안북도 삭주군남면답풍동면 협의원 김용은(平北朔州郡南面畓風洞面 協議員金用股)의집에이르러 일명은마당에서 수직하고 이명은집안에드러와서 김용은의 압뒤가에 총을대고 군자금을데 공하라한애 현금이업다한즉 김용은의당남 유영(長男游泳)(二八)을삼아 압세우면서 가치가자함으로할수업서서 현금일백원을 데공하얏다하며 그잇흔날 새벽에그동리 명하룡(明河龍)의집에이르러 역시권과가치 군자금을청구하매 명하룡은 현금이업노라거절한즉 주인과가족을 구타(毆打)하고 종적을 감추엇는데이급보를 드른 외남경찰관주재소(外南警察官駐在所)주임 호등수부보(主任後藤巡部補)·하소원과 각면주재소경관들은 그종적을 수색중이라더라(대관)

柴炭蔬菜市場
종로오뎡목에신설

경성부에서는 시내종로오뎡목권상작(鍾路五丁目勸商場)바로견혜 오백이십평이나되는 공디에『동대문공설시탄소채시장』(東大門公設柴炭蔬菜市場)을 설치하고저 총독부당국에 신청승인을마수일전허가되얏슴으로작의무리실행하얏다는데일반나무장사와 소채장사들은 길거리에서팔지말고 반듯이 저긔공설시장에들어가서 팔아야하며 일반사는사람도 그곳에가서 사는것이 득책이라더라

百萬名의生命을
구조한『어비신』씨의공로

『세부란스』의원당『어비신』씨의 재조선삼십년 긔념축하회를넘반유지의 발긔로 개최한다함은 작보에게재하얏거니와 씨는영국『요시야』에서 일천팔백륙ㅅ년에탄생하야여섯살 긋든해에미국북편『가나다』로 건너가써토라아『류란토』의두의과대학을 맛치고 일천팔백구십삼년에건너와 지금귀족회관뒤 경운궁(慶運宮)자리에『제중원』이라는 병원을내이고 즉시 고종대황데의시의가되는 영광을입엇섯다 이래삼십년이라는 장구한세월을 두고세부란스병원을 커가치 크게맨드러 거의 백만환자의 생명을구조하얏스며 의학권 문학교를세워 교육사업에 힘을 앗기지안코 또한거듭나아 종교사업에도 불소한공헌이잇스니 고종대황데께 청송과찬송가를 드린사람이 즉『어비신』씨 이엇다는 대한병원이 생기기까지에노항상고종대황데를 뫼셧슴으노 동학관리들 격근사람에도가장결실한 산력사가이라 할수섯다 독립협회와 부상패와의분정이잇서

대한문압 헤서 황데가친림하시와 재가를 나리실때에도 황데의시위와가치 전후를 목격하얏다하며 일천팔백구십오년에 경성에큰괴질이 잇슬때에도복승을 앗기지안코 구호하얏스며 광무십년에는 훈사등태극장까지밧앗다하니 실로히 씨는조선의유공자라고하겟더라

세부란스병원당 어비신씨

普校生徒溺死
먼저싸진학생이 살어갓다고소동

진남포비석리(鎮南浦碑石里)에는칠십칠번디 김성도 (金成道)의장남득신학교(得信學校)학생김광선(金光善)(一四)는지난구일오후네시경 학교로부터 집에도라오는길에 비석리 부근큰못에서헤엄을 치다가 싸저죽엇는데이못에서는 김광선과 가튼학교에통학하는 학생다섯명이 입뇌싸저죽은일이 잇슴으로 이것은임의죽은학생의 귀신이 잇서서동모를삼어 가는것이라하며 수동이굉장하다더라(평양)

酒幕거리에禁酒令
야학까지한다고

평북강계군 공서면 고당동주막거리 (平北江界郡公西面古堂洞酒幕街里)는녯날부터 술집만키로 유명하야 디명싸지 주막거리라 하얏든바 신풍조의 파도는그들도 엇절수업섯던지 그동내유지 김병옥 강병우김영곤(金秉玉姜丙禹金泳根)제씨의 힘으로금주회를조직하고 회원도만히 모집하며 점々성적이 조와간다는데 더욱긔특한것은 명신야학회(明新夜學會)라하고 강습소싸지설시하고 당소는 강병우씨략으로 교사는 김병근씨가 단독담임한다더라(강계)

開城紅葉會의
스켓취展覽
십륙일부터공개

개성(開城)홍엽회(紅葉會)에서는일반의스켓취미를장려코자 스켓취전람회를개최한다함은임의 보도한바어니와 출품뎜수가 이백삼십뎜에 이르러 매우성적이 량호하얏는데공진항(孔鎭恒)마해송(馬海松)등 제씨의고심으로 그중에 사십뎜은락선되얏스며입선된『스켓취』는전부개성남대문(南大門)루상을개방하야 더람보후 명십륙일부터삼일간 아츰십일시부터 저녁여섯시싸지 일반의관람을허할터이라는대박응찬(朴應璨)군의『첫녀름의봄』과 조춘선(趙春善)군의『남성병원』은 특선의 영예를밧앗다더라(개성)

殺人하고自殺한女子
남편에게계집을중매한듯 하다는혐의로이러한참극

지난오월삼십일일오전일곱시반경에 신의주약죽뎡륙번디 홍순려의처김성녀 (新義州若竹町六番地洪順偶妻金姓女)(二六)는 당디 밤아층에 일즉이이러나 밥을짓다가 길이한자쯤되는 일본칼을가지고 가튼주소에 거주하는자동차우권수박대언(朴大彦)의처뎡점순(鄭点順)(三〇)을찔너현장에서 즉사케하고 정씨진에 가치자든백영옥(白英玉)(二四)을찔으는봄으로 도망하야 최씨의집에고꺼하는것을 백씨는 간신히벼피신함으로 간신히 생명을보젼하얏는대 이말을들은 최모는즉시 현장에간즉 권씨정성녀는그와가치 사람을살하여놋코 곳자긔도 그자리에서 죽고자하는것을 간신히억제하야 그칼을빼슨후에 밧그로나와 경찰서에급보하는동안에 그녀자는 다시자긔집식도를가지고 자살하야 한밤에 참혹한두죽엄이 쓸어커잇고방안에는 류혈이 링리하얏는데이제그원인을듯건대홍순려의처김성녀는 가튼주소에 거주하는박대언의첩 정점순과가치 그날밤에 날이밝도록 다토앗는데 아마자긔남편이 다른녀자를엇고거함에정점순이 가중매를하엿다는혐의로죽엿다고도하더라(신의주)

一年間의自殺者가
칠천오백여명의다수인대 생활난의자살백륙인이장원
棄兒數도七十三人이多數

수자는 무엇보다도 그사실을웅변으로 설파를하는것이다 잘사도라 겨우오십을 채못넘기어서무러는 죽을날을 기다리게되는사람으로서 자긔가 스사로자긔의목숨을 씃는데는 반나시남의로서는 아지못할번민과 고통도잇슬것이다 그러나 좌우간세상이 점々번잡하여갈사록 자살하는사람의 수가느러가는것은 사실이니 재작년도보다 작년도가륙십일인이는것만 보아도 알것이다 작년일년동안 조선천노에자살을한수는 조선사람이 일천이백오십륙인 일본사람이 삽사인인대 그중에

목을매여 죽은사람이 륙백오십오인이요 물에싸저 죽은사람이삼백구십륙인이오 독약을마시고 죽는사람이 이백오십륙인 칼노죽는사람이 삼십구인이라하니 누구나 다아모리죽는다하드라도 자긔몸에 피를흘니기 스려하는바 조막길의 고혼정서를 면할수잇스며 자살을한원인을보면 정신에이상이 잇서서죽는사람이 삼백륙인 생활곤난으로 죽는사람이 일백구십구인 병드러서 괴로움을참지못하고 죽는사람이 일백오십오인가량의불화로 죽은사람이 일백오십오인이라하며 아해를 나아서바린수는 칠십삼인인데 경긔도의사십륙인이 데일만코 그다음으로 평안남도여덜사람 황해도여섯명이며 전나북도의 한사람도 업는것이 득식이라더라

義烈團員三名과
손일선씨파의중국인두사람 상해에서돈을강청하다데포

중국북경(中國北京)의렬단(義烈團)본부에서는 상해(上海)에파견한 동단간부들파원 한병뎍(韓明德) 김덕산(金德山) 송춘농(宋春龍)등 삼명과 손문(孫文)파의 중국인 왕일산(王一山)마호남 (馬虎男)등은 공모하야각기권총을가지고오월이십팔일밤 상해각국공동조계의 모중국인부호의집에드러가 현금 십만원을 강청하야갓는데 동디공동공무국원의 탐지한바되야 현장에서데포되야 취조를 밧는중이라더라 (모처정보)

康明花의自殺
내막는매우복잡

기명을명화(明花)라하야일시경성화류계에서 일홈이 잇다하든평양태생의강도련(姜道天)(二五)은경북재산가장길상(張吉相)씨

다치고,氣絶코
두가지뎐차사고

재작십삼일하오륙시이십분시내관철동(貫鐵洞)일백오십일번디백유현(白裕鉉)(二三)은종로청년회압에서 륙십사호뎐차에 치어서 손을부상하얏스나 본인의사칠로 병원에 가지아니하얏스며경긔도룡인군 (龍仁郡)에 원적을둔 안국운(安國云)(二五)은 경성에와서 로동을하는중 재작십삼일 하오구시 사십분경에종루이뎡목 합동공원압에서 취중에일백구호뎐차에서 뛰어 나리다가 긔절되야 곳소생되엿스나 일시긔고가서 곳경성병원으로다는데단분잡하얏다더라

仁川野犬捕獲
개기르는이의주의

인천경찰서에서는일전부터 압호단수행사로 금십오일부터 칠일간 계속하야 야견을잡는다하는바 붓잡은개는 주인의씨명을 자서하아는세는 도로내여준다한즉 개를일흔사람은 주소와씨명을적어 부근파출소에 룡시하야 개를차자갈것이오 또는개의목패에 주인의주소와 씨명이업는개는 야견으로 간주하고유서업시곳포획할터이라더라(인천)

新郎新婦

본사 정치부당 최원순(崔元淳)씨와 동경녀자의학전문학교출신 현덕신(玄德信)양과의 결혼식은 명십륙일하오네시부터 목사 김창준(金昌俊)씨의 주례하에 시내종로중앙레배당에서 거행한다더라

◇……모임……◇

▲웅변회 종교예원청년회주최로 오는십륙일오후여덜시반부터 종로중앙긔독교청년회관에서 웅변회를개최한다는데 입장료는 이십전이며 연데와연사는

經濟發展에伴하는눈물 柳根煥
우리의赤綠 李英漢
나의努力과生存 鄭泰熙
解放의謎 申長均
現代人類上心理狀態 任孝濟

▲강연회 조선불교대회에서는 금십오일오후여덜시부터 당곡뎡동회관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는데 연데와연사는

因緣無碍 洪鐵牛
三世因果 寺西嘉彦
思想偏重 安瑞圓

▲로동대회 에서는명십일오팔시반부터 시내경운동 텬도교당에서 강연회를여는데 강사와연데는아래와갓다더라

勞働力搾取 蔡奎恒
無產者의活路 申昌益
救世主勞働者 金 燦

◈휴지통

▲일선융화이니하며 떠들고도라다니는것을밥그릇으로아는위인이 조선사람간에도잇고일본사람중에도간혹잇다 ▲리동화외류봉길이라하는 두사람이잇서 일본목도『福島』디방에서지난팔일에일선동화강연을한다고신문사가타로돌어단이며후원을청하엿다 ▲그런데이디방고등학교에는몃사람의 조선학생이잇는데 이터임으로 그네들은 이말을듯고그자들의려관을차자가서 ▲이놈아이것을누가식이더냐이것이조선사람권내의의견이냐? 하고 질문을시작하야쐿닥하드면주먹이나릴형편이엿다 ▲그러나 그자들이잘못하엿다고 사과를하고 곳중지하겟노라고한싸닭으로별일은업섯스나 수백원을드려서이쇄하엿던 선전비라 기타설비는동으로돌앗것다니

天氣豫報
晴一時曇
自十四日午後二時 至十五日午後二時
日出 午前五時十一分
日入 下午七時五十二分

더우비교
溫度 十三日正午 二七·八
攝氏 十四日午前六時 一七·八
今年昨日(正午) 二七·八
昨年昨日(正午) 二〇·六
昨年最高溫度 三一·三

治積胸痛丸 年久積滯神藥

이약은연구한적체와흉복파담최파가삼아리와기라만숙적병에데일등효험하오니우병수고치모든주키치말고입차시옵시요

卄一日分 定價金 一圓八十錢

京城鍾路二丁目 壽山藥房 振替京城七四四〇

金銀美術 錺職販賣 京城鍾路 潤光商會

本人의使用하든圓形白角印章을今月拾日咸北吉州郡에서紛失하얏기前章은無効로하고更히使用합 京城府貫鐵洞二十二番地 朴齊楨

忠州郡金加面本人土地臺帳을本月十日頃에紛失하얏스니典賣等은本人의不關이오니內外國人勿見欺함 唐珠洞二二七 閔內璜廣告

安亨植昨失漢銀特有帳千五十號

女子求職者福音

店員採用、希望者는履歷書添付해面會或來談、初給月二十圓以上 但資格에依하야增額함 忠南公州靑年商會主 金英培

女子社員募集

普通學校卒業程度年齡十七才以上三十才未滿者數名募集함 自筆履歷書携帶本人來談할事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八一ノ七 東亞貿易株式會社京城支店

又春旅館

敬啓者本人이多年又春館에서料理業에從事하와江湖僉位의愛顧를厚蒙하야營業이繁昌中僉君의厚恩을萬一이라도報酬키爲하야第二又春館跡에서高等旅館을開設하고客員의便宜를圖하며親切酬應하오니愛顧하심伏望 本地府里門里五十一 長館話一〇五九番

最新發明 網紗輕便安眠門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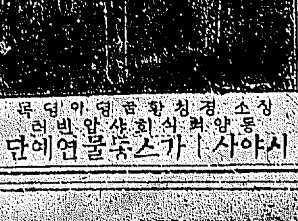
◎此品一件이면數三間房이라도모기는염녀업다 些少한金錢으로樂園스런운安眠을하시랴면此新發明網紗輕便安眠門帳을愛用하시옵
小本一件一圓五十錢 中本一件一圓
◎色別 眞粉紅、軟粉紅、草綠、玉色、黃色
◎但地方代金引換
京城黃金町二丁目十一 發賣元 德眞洋行
◎特製美麗使用便利洗染自在四五年耐久力保險

急告織造家諸氏에게

綿糸各種 染料各種 曹達灰(製紙用) 入荷
(洋襪其他編織造에使用하는綿糸染料及藥品을特價提供함)
綿糸布 染料 輸入商 ゴム靴 株式會社 共進商會 京城太平通二丁目 振替京城四三三八

本人이日本東京에서辯護士業務에從事하옵다가今般左記場所에事務所를設定하고一般民刑商事及特許事件等을取扱하나이다 (但貧困한이의關係事件은無料로應함) 京城府仁寺洞三五番地 (電話本局二七〇六番) 辯護士 辨理士 李 仁

十七日로부터開演 世界一의猛獸劇 …[illegible]…



大成學友諸君에게

六月十八日午前十一時本會定期總會를本校에서開하오니學友諸君은多數參席하심을望함 住所를不知하야紙上으로通知하오니諒察하시옵
大成學友會 白

洋靴는 新裝特價의型으로製造販賣하는 太昌號에限함
特價大々提供
복스短靴 十一圓
복스編上 十二圓
깃도短靴 十二圓
깃도編上 十四圓
白쓰크布表 靑象皮底 運動靴 一圓卄錢
복스表 靑象皮底 運動靴 二圓
洋靴、綱靴 運動靴便利靴 乾油靴 고무靴
◁商品定價表進呈▷
販賣部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電話本局長三四二七番 振替京城一〇五七二番 太昌號

好職業 全朝鮮景品附賣藥 各地方代理店募集
…[illegible]…
全朝鮮景品附賣藥發賣所 朝鮮商會 主 安 … 藥種貿易

金鑛業者各位에謹告함

京城南大門外(下)德本銃砲火藥部는朝鮮各道主要地에販賣特約店을有한朝鮮第一의다이나마이트(爆藥)類의撤利供給店인것이承認되여잇소鑛山業者는所用의多少를勿論하고尤先同店에價格供給等을協議하시오 (電話本局一四五三番)

ClibPDF - www.fastio.com

泣血鳥 (14)
李熙喆作 盧壽鉉畫

산수로 입을수며노코 남편의각 대도를 암아보다고하는 해지부인의말은 맛치한경험과고 갓가희망어서 하얌이 오기를 기다리는듯한 공포와조급, 게다가심접 고무러진 관청을가진듯 하여 다「차마보지못」에서커더 방밀먹고슬간밥을거커 마무를 그자로 도라 밧깃변소로가라히면 하던씨는 자긔방안을 지냐에 에려 노흔뉴리창을 통하야 책상우에 편지가 노힌것을보앗다 그는기입을을 입수라하다가 이쑤시던 시그냥 변소로가버렷다 변소에서나온그는 곳지긔방으로 도라왓다 편지는친만의외에 놀너나 간것이러하면 병호가 쓴것이다 생각하면 벼에 사모치는은혜옵시다 갑바를봅니, 외국에방와하면 저를 주어다가 이때삼년간을 지식가치 사밧하시고 화교에까지 보내주셔서 지금대학교를 졸업한지도 사오개월이 넘엇스되오히려사맛하시고업마든지 커의친도를위하야 애쓰시는 그은혜는 태산보다도 놉고 바다보다도 깁소이다
그러나 커는이제 선생에게 목숨드러 일명을 구할뿐이 되엿나이다
(中 略)
아々그러나 봉자를 가호하게 밧하지마옵소서 만일봉자에게 하려면엇만한 고통이 가하더라도 커는하뿐옴 향하야 스々로 목매는자가 되겟나이다
그러나 선생에서는 청년남녀의가슴을 헤아려 주소서 원컨대 선생자신의 청년시대를 생각하시고 이번일을 용서만 해주시면 커는선생을위하야 봉자와가치 일생을 그귀여우신술하에 밧치겟나이다
구월이 신칠일 본던병호상 하던회장랑 현
면지를읽고는 하던씨는 가슴이 라마렷다 봉자와병호가 미워서 가슴이 막힌것도아니요 잡안에 이편일이 낫스니 엇커나해서 그런것도 아니엿다 그는말수업는 대상에대하야 분로를 감각하엿다 그는한갑섭분한안이나 쪽가흔감정으로모잇섯다
민족적의식은 청뎡인 녀청에게는 그리할뭄이 업슬것다 다만커들은 감정만탐하고 애정만생기면 모든의식의범위를떠나 사랑에서 며사랑을참조하엿다 혜지부인이나 봉자로말하면 병호에게대하야 커것은 조선사람이닛가 하는생각은 최근에와서는궁에도업섯다 물론봉자는 더칭신그런에 업서젓다고 할수잇다 그러나 하던씨는 그런수가업섯다 그는병호를 멸시하라는것도 아니요 엇던때에는 병호를자식가치 생각지아니하엿슴도 아니나젼혼는 가장계급뎌이요 지위뎌이요 명예뎌이요 더크게민족뎌인가타에 적이구식뎌이라할만한 하던씨는 조선사람인병호를 봉자의남편으로뎡하야두민족의풍속습관을 합한다하는것는명료한의식은 아닐지라도 그의뎡성은 이것을부인하엿다 부빈은 고사하고 그런것은꿈에도 생각지안앗던것이다
쎄머리를내여밀고 나왓스니 하던씨는엇더하라
덤성이 하향ㅎ고 악착한곳이 업는하던씨는곳 모든것을 단렴하엿다 되는대로 되며라하엿다 더 잔생각이 나오지만앗다 그는 혜자부인에게도 아모말업시 그날밤을지낫다
커며밤도 잘먹지못하고 가슴올나러숨며 엇지되나 하고눈치만보면 혜자부인은 웅당남편이 던지는 보얀손터인데 하고아모말업는것을 이상히 생각하엿다 불론 처청하에 남편의얼골이 적이 달나진것은사실이거니와아모말업는것은실로이상한일이라 하엿다
혜자부인은 잠이 잘아니왓다 옷깔베에 남편이무슨말이나 아니할가하야 역시 침착지못한가슴을 두근거리고 기다렷다
그러나 신분나지날가 암가해서 남편의코구는소리가 엽헤서 난다 혜자부인은 머리를도리켜 가만히 드려다보고「자 이거 웬심인가」하고 가비얍게 그만우서버렷다
그날커녁에 데일 가련한것은 봉자엿다 병호를 사랑하게되후로부터는 뎌님인지 아바지를대하는것이 시부모를 대하는것갓해서 맘도제맘대로못하고 늘조심스럽게 지내던터인데 이제 이편일이 나고보니 그커 자긔몸에 무슨큰불행이 이르는것갓햇다 일쪽부터 지리쇽에드러가서 벼리이 떠러지기만기다렷다 이런때에는 그래도 애인이와서위로나해주엇스면하고 호분한 머리쇽에병호를생각하기도하엿다

各地時間宣傳

光州 六月十日時의紀念日에光州에서는時間宣傳을大々的으로行하얏는데道廳에서는[illegible]蹊을中心으로하야花自働車三臺로外樂隊를乘케하고市內를巡廻하며時間에對한街上演說이有하얏스며普通學校生徒는列을作하야『時간을守하자』旗를持하고市內를行列하야時間宣傳唱歌를高唱하며宣傳紙를散布하얏고官公署에서는花砲를發하야午正을報하는等盛히大宣傳을行하얏더라(光州)

公州 去十日『時』의宣傳紀念日을期하야當地各學校及官公署에서는宣傳文을市內에散布하고青年修養會에서는花自働車에樂隊를先頭로市內를巡廻宣傳하얏더라(公州)

安岳 黃海道安岳邑의各官公署及團體에서는去十日에時間宣傳을大々的으로行하얏더라(安岳)

平壤 去十日은『時』의記念日이라하야平壤府廳에서는午前十一時半부터自働車九臺로市內를巡廻하면서宣傳文을配布하고又學校에서는時間에關한講話會를開催하며寺院敎會工場에서는正刻을期하야汽笛과鍾鼓를鳴하얏더라(平壤)

龍岡 平南龍岡郡에서는去十日『時』의宣傳을行하고普通學校에서는此에對한講演會를開催하야盛況을呈하얏더라(龍岡)

羅州 六月十日『時』의宣傳을行하얏는데各學校生徒의行列과各官公署의行列이有하얏더라(羅州)

安州 去十日『時』의宣傳을盛大히行하얏더라(安州)

高敞 全北高敞郡에서는去十日『時』의宣傳을行하기爲하야正午에午砲를鳴하고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도時間宣傳講演과行列이有하얏더라(高敞)

洋襪職工困境
工場主의橫暴로

平壤에는約十年來로洋襪織造業이자못旺盛하야只今에는大同、共和、平壤、西鮮、三共、順尙、世昌、新成、錦光、東昌、合名、大元、金谷、永信、等數十餘工場이設立되얏스며此에雇傭하는職工數도實로千餘名에達하게되얏는바物價로써만人生의價値를換算하는現社會에서는勿論資本主의橫暴와不合理한弊害도不無하나平壤洋襪工場主側에는不過幾許의資金으로써所謂工場이라고經營하는例가不無하야恒常營業을繼續的으로하지못하고一時機械를보아機械紡績하는者가有하며더욱히洋襪織造機械는工場主가設備하고職工은다만勞力만파는것이常例인데大部分은職工이原主의機械를月賦로買受하게되야機械[illegible]針代가큰것外지도依例히職工이貧困케되얏슴으로襪片이마되지못하는賃金中에서機械代賦拂然針代또는所謂破紙代(織造에欠點이有하면原料代를受取함)其他모든것을控除하면그의實收入은數十圓에不及하는狀態이며그나마職給的으로織造치못하고夏期만되면織造를停止하거나또는不意에職工數를減縮하는等諸般弊害가多한中에今年春부터는임의報道한바와가치洋襪輸出이減少됨을따라不遠에停業을하게되얏슴으로千餘職工은結局生活難의慘劇을免치못하게되얏다그리하야此等의職工들은工場制度가不合理한것에對하야大히不平을唱한다더라(平壤)

光州勞働宣傳

光州勞働共濟會의賃銀勞働組合에서는去六月一日에光州市日을利用하야左와如한宣傳文을配布하얏더라

일어나거라 ▬
强한者여 너의일홈은勞働者이다 勞働者여일어나거라 힘잇게, 모는自由가너를기대린다 뭇가며라 굿세이게 만흔幸福이너를찻는다 도라보지나간길을 네손으로온갓文明을다지여놋코도 너ㅣ홀로生活이窮乏하엿슴은 가진物貨를다만드러주고도 홀로生活이窮乏하엿슴은 사람된權利를차즐줄모르고 너무도오래누어잔까닭이엿다 김흔꿈을깨워주며 일흔것을찻게할곳어데인가 光州勞働共濟會로차저가서 賃銀勞働組合에드러야한다 그리고동그러운사랑줄에 뭇기여한덩이가되여보자 아ㅣ神聖하다 勞働 强하다 勞働者의힘
내것임을나모를때
가젓든자누구인가
내것임을覺醒하니
왼갓살림내것일세 (光州)

麥作收穫豫想
載寧郡三割減

載寧郡의今年小麥收穫豫想을聞하면昨冬에降雪이少하고日氣가甚히寒冷한關係로麥苗가凍枯된것이多하야昨年에比하면其中改良種『기리호니아』는氣候가不適當함인지苗代의凍枯가一層甚하야五割의減收가되리라고觀測하는바農民側에서는同種에對하야甚히懷疑하는모양이더라(載寧)

大同江鐵橋
年內完成有望

目下工事中인平壤大同江人道鐵橋는共同經費問題로速成을期키難하다하야市民代表들은總督府當局을訪하고速成을陳情한바도有하얏는데元來來年四月까지限하야竣工할豫定이나土木部出張所에서도可及的速히完成을期하고工事를急々히進行中임으로今年內로竣工될듯도하다더라(平壤)

光州小作會議

光州郡十五面小作人會의聯合會인光州小作人會聯合會에서는去十日當地興學館에서第一回執行委員會를開催한바各面會代表가一齊히出席하얏고또多數한小作人의傍聽이有하얏는데議長徐廷憲氏의司會로議事를進行한바決議事項은如左하더라
一、今年七月十日을限하야各面小作人은全部入會하도록할事
一、各地主에게返推할地稅及公課金調査報告는七月末日까지에完了할事
一、小作權還奪에對하야地主或新小作人의不應으로移秧上紛擾가起하는土地는各面會에서動員하야此를移秧케할事
一、係爭하는小作權의落着에對하는畓作收用及爭議에對한事는該幹部가立會下에附近老農五人以上의公決로써할事
一、各地主의行動을秘密調査成冊할事
一、每月第二日曜日에執行委員會를開催할事(光州)

安東脚戱大會盛況

安東縣朝鮮人間에서는去三十一日當地鎭江山游亭에서運動會及脚戱大會를開催하얏는데數百의力士가各히勝負를競하는光景은實로壯觀을呈하얏스며觀客은人山人海를成하얏더라(安東縣)

安州署의口頭取扱

安州警察署에서는今般人民의便利를圖하기爲하야從來書面에依하야屆出及願出하든것을特히左記事件에限하야는口頭로申告케하얏더라
一、諸營業廢業休業移轉氏名變更屆等
一、行旅病者死亡者變死傷者發見盜難屆等
一、諸車檢印營業帳簿檢印藥人留置人面會家出者搜査說諭願
一、告訴告發其他簡易한事件等(安州)

利原聯合大運動會

咸南利原敎育分會主催로運動會를開催한다함은旣報와如하거니와豫定과如히去三日利原邑南大川遊大廣場에開催하얏는데同會에서는時間前에總會를開하고經過事項報告가有한後荒非君의運動會에對한注意說明이有한바會員中에서는今般運動會를開함에對하야總會의承認을求하지아니하고評議會의決議로써此를行함은不可하다는抗議가有하야評議員들이自擔하라고主張하자잇섯스나是非는總會에서討議하기로하고運動會를開하얏는데參加學校團體는八個團體에達하고觀衆은四五千을算하는盛況을呈하얏는바競技는二十餘種에達하얏스며其中一千二百米突學生競走는頗히壯觀을呈하얏는데此에一等은龍項新興學校選手康元一君二等은利原公立普通學校選手李根哲君이엇더라(利原)

潭陽私校聯合運動

全南潭陽郡에서는東亞日報潭陽分局의主催로各面私立學校聯合大運動會를來十六日同郡觀漁場前에서擧行할터인대參加校는九이오各校生徒는三千名以上에達하며競技種目은六十五種인바當日은大盛況을呈하리라더라(潭陽)

各地青年團體

●義州體育會素人劇 義州體育會에서는同會基本金에補充키爲하야六月十六日부터三日間當地公會堂에서素人劇을興行할터인바入場料는五十錢、三十錢으로하고一般有志의多大한同情을求한다하며同十九日부터四日間은新義州에서同二十三日부터三日間은安東縣에서興行할豫定이라더라(義州)

●元山主日校大運動 元山長老敎幼年主日學校의主催로來十八日(端午日)上午九時부터市外松興里(개말)海岸廣場에서春季大運動會를開催한다더라(元山)

●非邑勞働組合新築 全北非邑勞働組合에서는今般千餘圓의工事費로同邑東池里에事務所를建築中이든바今旣竣功되야不遠間落成式을擧行하리라더라(非邑)

●大田商業補習校生旅行 大田公立商業補習學校生徒約八十名은去八日午前大田發列車로湖南線論山에見學次로出發하얏다(大田)

江界第一回庭球會

平北江界天道敎靑年會主催와本社江界支局後援으로第一回江界庭球大會를來十六日午前九時부터仁風樓『코一트』에서開催할터인바大會의要項은如左하더라
日時 六月十六日
場所 仁風樓『코一트』
區域 江界城內各團體
申込所 天道敎靑年會事務室
加入金 一組에一圓
每團體에二組式選拔하야選手를맛기게됨(江界)

全大田庭球大會

湖南日報主催第一回全大田庭球大會는去三日午前八時부터大田庭球場에서開始되얏는데參加團體는四十八의多數이엇스며勝利의月桂冠은東拓支店尹相鉉君에게歸하얏더라(大田)

崇大靑年講演會

平壤崇大基督敎青年會傳道部主催로去九日午後八時半西門外耶蘇敎禮拜堂에서金昶濟氏를演士로하야講演會를開催하얏는대印度의靑年의缺點을論하야猛省을促함이란問題下에長時間의熱辯이有하얏스며間々音樂의演奏도잇섯더라(平壤)

安岳鐵山脚戱大會

黃海道安岳鐵道鐵業所主催로來十八日(陰五月端午)에脚戱大會를開催한다는데賞品은▲一等大牛一頭▲二等中牛一頭▲洋木一疋煙草一箱▲三等白米一俵라더라(東倉)

利原青年聯合巡講

利原靑年會聯合會巡廻講演團一行은去五月二十八日夜瓦宇里靑年會館에서講演會를開하고金容瑞氏司會下에演士全元淑君은『우리들은누엇을要求하리오』라는演題로李昌河君은『참을위하야』라는題로各히熱辯을試하얏더라(利原)

三防葯水場繁昌

安邊郡衛益面三防里藥水浦(三防停車場에서略五里)의藥水飮用者는逐日增加하야現在二百名以上에達한다는대胃病에特效가잇슴으로距今五六年前에는住民이三四戶에不過하든것이數年來로四十餘戶의村落을成하야春夏秋三期에는자못繁盛하다더라(元山)

主催 鷲城青年會

慶南蹴球大會

時日 六月十六、七日
場所 鷲城青年會運動場
加入期 六月十四日까지
抽籤 六月十五日午後五時
團員 九人(外에後補二人)
加入金 二圓

後援 東亞日報靈山分局 靈山天道敎青年會

家庭에업지못할常備神藥

方名	定價	效能
解熱散	二十錢 五十錢	感氣、悲感
祛痰散	二十錢 五十錢	咳嗽、百日咳
寶丹	十錢 二十錢	消化、氣鬱
健胃固腸散	二十錢 五十錢	痢疾、泄瀉、吐瀉
含嗽藥	二十錢	咽喉症、含洗用
驅梅膏	二十錢	下疳、梅毒、切傷
百應膏	二十錢	拔根、濃吸出
開明水	二十錢	流目、眼疾、星目、疳目、其他
電氣丸	二十錢 五十錢 一圓	胸痛、腹痛、頭痛、偏頭痛、驚風、癇疾
金鷄蠟丸	二十錢 五十錢	瘧疾、腹痛
神効膏	二十錢 五十錢	疥瘡、痲疹、濕瘡
ダルマ膏	十錢 二十錢	濕疹、火傷、凍瘡
大塚胃散	二十錢 五十錢	滯症、消化不良
驅虫散	二十錢 五十錢	蛔虫、蟯虫、五疳
萬能液	二十錢 五十錢	風毒、瘰癧
沃度丁幾	二十錢	打撲傷、腫脹、骨刺
治癩球	一圓三十錢 一圓八十錢	勞痲、淋痲、血痲、白痲、冷痲、消渴
根治丸	一圓三十錢 一圓八十錢	一二三期梅毒必根治及下疳劑

右는京城賣藥界에名聲이嘖々한家庭常備藥으로原料의精密함과效能에迅速함은本舖에限함

京城南大門通四丁目
製造賣元 救世藥館
一錢郵票로請하시면割引票及規則을付呈
電話本局二七二二番 振替口座一六一番

米粟其他雜穀 原鹽再鹽販賣 及海陸物產委托賣買業
當店의重要取扱品은 穀物、鹽類海產品
仁川府花房町壹三番地(仁川驛前)
權泰璟

資本金參千萬圓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年賦又는定期償還方法에依한勸業資金貸出外의一般銀行業務
頭取 有賀光豐
電話長六〇一四番 營業振替貯金口座四〇九番 道金庫振替貯金口座特二三番

支店及派出所
(京畿道)仁川、水原、開城(忠淸北道)淸州、忠州(忠淸南道)公州、鳥致院、大田、論山、江景(全羅北道)全州、群山、井邑、南原、裡里(全羅南道)光州、木浦、麗水、筏橋浦、順天(慶尙北道)大邱、金泉、尙州、安東、浦項(慶尙南道)釜山、馬山、晋州、統營(黃海道)海州、沙里院(平安南道)平壤、鎭南浦、安州(平安北道)新義州、宣川、江界(江原道)春川、鐵原、江陵(咸鏡南道)元山、咸興、北靑(咸鏡北道)淸津、羅南、城津、雄基、會寧
其他內地、朝鮮、滿洲、支那各地에爲替取引先이有함

殖產金…資金을造成하랴면當行의『殖產貯金』에加入하시오 그리하야每月게을니말고一年間繼續하시면便利하게資金의融通이됩니다

百濟病院
釜山府草梁
院長 醫學士 崔鏞海
副院長 醫學士 江里口春志
電話 一六二七

等閑하면 못쓸
도라호-무 血眼症
第一잘듯는目藥에
直治水
其他眼病一切에特効잇소
眼病良藥 直治水 CHOKUJISUI
丹平商會

朝鮮文으로쓴
노이루錠說明書
無價仰呈
生殖器神經衰弱患者의回春!

陽氣不足、陰萎、夢泄、遺精、早期射精、과腦神經衰弱에對하야說明한것이외다、藥書로寄別하시되新聞名을반다시記錄하시오、往來書信은반다시朝鮮文으로쓰시기를바랍니다
東京市京橋區新榮町四
仁命堂大藥房

美人

顔面의거츨지안는
カテイ石鹸
가데이

文化生活에適應한科學的優良石鹸

健全한皮膚
와生氣잇는頭髮과는科學的으로挑良한가데이石鹸의愛用에依하야엇슴니다가데이石鹸의常用은衛生思想의進步와文化生活의理解를말함이외다

汽車時間

[illegible]